금주의 기도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여러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속함을 받은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9월 24일 (토) 제 160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 기독교는 아직 건재하다!"

CT, 최근 여론조사 결과 "크리스천 감소"에 대한 반론 사실 논증 게재

최근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에서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고,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어떠한 종교적 관계를 갖지 않는 '넌스(Nones)'가 증가하고 있어, 미국은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섣부른 예상마저 전개되고 있다. 물론 미국 교회들 중 일부는 교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울러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건강검진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실시해서 우리 몸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찾아내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듯이 여론기관들의 정보는 중요하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는 라이프웨이(LifeWay) 책임자로 있다가 현재 휘튼 대학 빌리 그래함 센터 선교 책임자이자 선교전문매거진("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발행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에드 스테처(Dr. Ed Stetzer) 박사의 기고(The State of The Church in America: When Numbers Point To A New Reality, Part 1 : Before you dismiss research as unimportant, read this. If facts are our friends, then it's time we listen to them for the good of the Church in America)를 전격적으로 3회에 걸쳐서 연재했다. 스테처 박사는 여론기관의 조사 결과 숫자상으로는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경건한 나라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본지를 이 기사를 2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여론조사기관들에서 말해주는 숫자들은 주의 깊게 새겨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결과가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 사역이나 현실에 반영해야만, 여론조사기관들의 정보들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는 제도화되고 공식적인 종교를 버린 '넌스'들마저 증가하고 있다.

퓨리서치의 2007년 '미국 종교지형 변화 현황' 연구에서 미국인 중 16%가 어떠한 종교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15년 연구에서는 그 숫자가 23%로 증가해 한마디로 미국인 4명 중 1명은 종교가 없다.

갤럽은 또한 '넌스'의 증가에 대한 보다 광의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1967년 조사에서, 미국인 중 2%만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와, 50명 중 1명만이 종교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6%로 수직 상승해 7명 중 1명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퓨리서치는 자신을 크리스천이었다고 고백하는 미국인들의 감소를 추적해봤다. 2007년,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2014년 즉 7년 만에 다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중 7명으로, 7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퓨리서치는 미국 역사이래, 미국인 중 개신교인 숫자가 더 이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46.5%)마저 발견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내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은 아직 경건한 나라이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도 있다.

따라서 퓨리서치는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신앙과 결별하고 있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듀크 대학의 막크 체베스 교수는 퓨리서치가 발표한 일련의 설문 결과들이 미국 종교가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올바른 역사교육만이 지침 줄 수 있다

NPR, 2001년 이후 출생세대에게 9.11 가르치기 운동의 시작과 어려움 소개

"잊지 말자 9.11(Never forget)"은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의 모토가 됐다. 하지만 공동체의 집단 기억이 빚어지는 장소인 학교에서 9.11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고교 사회과목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9.11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는 주는 2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아주 좁은 틀을 통해 다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PR(National Public Radio)은 2001년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 9.11을 가르치기 위한 움직임들을 소개한다(Teaching Sept. 11 To Students Who Were Born After The Attacks Happened).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애국법과 자유, 이슬람극단주의와 이슬람공포증...
교사들도 힘든 주제지만 선거철 편견과 잘못된 정보 없애야

지난 9.11 15주년을 맞아 테러 현장에서 산화한 아버지, 뉴욕 경찰관 에드인 오티즈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 벽에서, 버내테 오티즈는 딸에게 할아버지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다.

2001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9.11을 직접 겪지 못한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큰 부분이었지만 저는 그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중학생 케일라의 말이다. "쌍둥이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 밖에 몰라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행기가 몇 대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동급생 조시가 말한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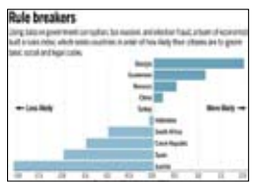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부패한 사회는 거짓말 권하는 사회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샬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시 론

사슴나무골에서(34): 마라톤과 신앙생활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와서 살던 오레곤 주의 유진이란 도시에는 운동화를 만드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미 30여년 전에 학교 운동장과 도시 곳곳에 달리기 선수들과 조깅을 하는 시민들을 위한 인조 육상 트랙을 설치해 놓아서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살라자르란 지역 청년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그 유명한 뉴욕마라톤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자 유진이란 작은 도시는 육상과 마라톤의 메카처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고 건장한 청년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장애인들까지 조깅코스나 경기장 트랙을 따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보슬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씨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기대와 소망이 충만해서 단숨에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라톤 대회의 출발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1등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당장이라도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의욕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코스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서 체력이 급히 소진되고, 때론 같이 달리는 선수들끼리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며, 땀을 너무 흘려 탈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항상 형통하고 순조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믿음도 성장하게 됨을 압니다. 때론 같은 교우들 간의 갈등으로 시험도 들지만 시험을 이겨내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해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완주를 위해 자신의 체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흡과 페이스 조절입니다.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풀코스를 전력질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코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입으로 호흡을 하되, 달리는 리듬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합니다. 호흡을 잘못하면 산소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폐와 심장에 금방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팔다리를 비롯한 모든 근육에 쉽게 피로물질이 쌓이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페이스 조절은 동일한 체력과 조건을 갖춘 선수들 간에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42.195km(26마일 385야드)의 긴 거리를 자신의 체력에 맞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의 안배와 완급을 조절해야만 끝까지 완주도 가능하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쥐가 나든지 무리가 와서 경주를 포기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목회사역에서도 영적 호흡과 영적인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의욕과 열정만으로 임하면 얼마못가서 영적으로도 탈진하고 육신적으로도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때 말씀 묵상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의 역할을 합니다. 헌신했던 교회지도자들이 헌금을 유용하고 한평생 목회에 전념하던 목회자들이 성적스캔들로 실족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됩니다. 목회나 교회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지켜보면 이러한 호흡과 완급조절의 달인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보고 완급조절을 잘하는 것이 평생 사역, 평생 목회의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해서 달릴 때가 있듯이 서서히 준비하며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도전하며 강하게 권면해야 할 때가 있듯이 위로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보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신앙생활이나 마라톤이나 모두 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가까워질수록 모든 생각과 초점을 모아서 집중하며 달립니다.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1등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주하려고 합니다. 최종 결승점인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dspark@gmail.com

"부패한 사회는 거짓말 권하는 사회"

사이언스, 위법이 자연스러울수록 거짓말 더하게 되는 연구 결과 발표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라고 자신을 달래본적 있는가?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주하는 사회라면 아마 보통 사람들도 거짓말을 더 자주하고, 사후에 이를 합리화하려 할 것이다. 이런 통념과 맞아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됐다. 즉, 제도적인 부패, 조직적인 사기가 만연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자주한다는 것이다. 정직함이라는 가치가 대접받지 못하고, 정직한 행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패한 사회는 거짓말 권하는 사회가 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악을 끼친다(Corrupt societies encourage lying).

일상 속 보고 듣는 것들을 판단 준거로 삼아
경제적 요소도 한몫...서구유럽이 가장 정직

과거 연구는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즉, 쓰레기더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잘 버린다는 식의 연구였다. 암스테르담대학교의 행동과학자 숄 샬비 교수는 다음 과제는 단순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이 미치는 영향이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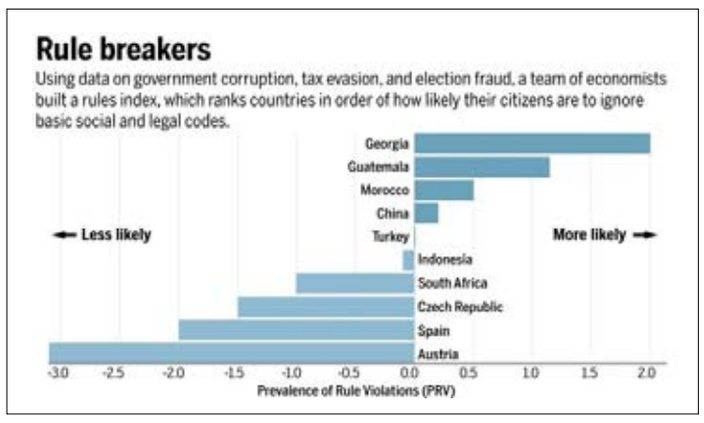
"정치적인 사기, 부패, 만연한 탈세 같은 제도적인 부패나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159개 나라의 정치적 부패, 탈세, 선거 부정에 관한 데이터를 모았다. 세계은행과 프리덤하우스의 데이터를 모은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이른바 "일상적 위법지수(institutionalized rule-breaking)"를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진은 5년간 이 가운데 23개 나라를 골라 개개인 수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를 측정했다. 대학생 나이 대에 해당하는 자원자들을 모집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내용은 간단하다. 즉 참가자들은 주사위를 굴려 숫자가 몇이 나왔는지를 연구진에 보고하면 된다. 높은 숫자가 나올수록 높은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연구진은 주사위에서 실제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고,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진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거짓말을 할 유인 동기가 있는 셈이다. 주사위를 한 번 굴렸을 때 나올 숫자의 평균은 확률적으로 3.5여야 한다. 참가자들의 답을 모아 평균을 냈을 때 이 숫자가 3.5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토대로 참가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을 지를 추정할 수 있다.

답변을 종합해 일상적 위법지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연구진은 법을 어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더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표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막대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나라일수록 범법이 만연한 사회이고 반대로 왼쪽으로 치우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원칙을 잘 지키는 나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참가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 수위를 조절한다는 점이다. 주사위를 굴려 실제로 5가 나왔다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6이 나왔다고 보고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사람들은 아예 주사위를 던지지도 않고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모두가 6이 나왔다고 하지는 않는다. 6이라고 하면 보상이 가장 크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일종의 합리화할 구실을 주기 위해 3이나 4가 나왔다고 말을 한다. 샬비 교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정직한 편에 속한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경제학자 조나단 슐츠는 이번 실험을 진행한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이다. 슐츠 교수는 이를 "정당화된 거짓말(justified cheating)"이라 불렀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정직한 거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랐다. 슐츠 교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고 말했다.

서구 유럽 사람들은 대개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사람들이 특히나 정직했다. 반면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다.

경제적인 요소, 즉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한 이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푼돈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많은 게 걸려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정직하게 산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도박의 일종인데, 도박에 대한 통념이 사회마다 다르므로 결과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30th Anniversary 1986-2016 Midwest Universit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 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미국 기독교는 아직 건재하다!"

〈1면에서 계속〉

"급속도로 진행된 감소는 없고, 아직까지는 세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종교 현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고 본다."

일반 언론이나 세속주의자들은 이러한 퓨리서치의 자료는 바로 미국 기독교의 완전한 붕괴나 궤멸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라고까지 함부로 말한다. 그러나 여론기관의 정보들은 복합적인 현실을 말해줄 뿐이지,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방송에서의 첫 기사로 자주 등장하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언론은 말해주지 않고 있다. 약간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아직까지 상당하게 분포돼있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을 실어보자. 먼저 퓨리서치 자료들은 다른 종교 여론전문기관(the General Social Survey, the GSS)의 자료와 같이 검토해봐야 하다. The GSS는 1972년부터 미국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과 실천에 대한 유형들을 조사해온 전문 여론기관이다.

The GSS는 종교적 전통이나 소속을 분류하기 위해 '렐타트(RELTARD)'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즉 종교적 그룹들 간의 교리적이나 역사적인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전통이나 소속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방식이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드러난 미국 종교의 미묘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실례로, 퓨리서치를 비롯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

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the GSS 자료를 보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The GSS는 자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근소한 감소가 있다고만 한다. 따라서 일반 언론에서 지칭하는 "붕괴"라고 규정지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불길한 회색 빛 전망을 확언할 수 없다.

결국 "교회 출석율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갤럽은 1940년 미국인 중 37%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간다고 응답했다. 2015년에도 거의 같은 숫자 즉 36%가 교회에 나간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일반 언론이 말하는 "붕괴"나 "괴멸"을 말해주는가?

The GSS 자료는 더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개신교회에서는 탕자들처럼 대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교인들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개신교회에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23%에서 20%로 불과 3%의 감소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숫자로만 파악할 수 없는 미국 기독교의 실제가 바로 이것이다. 아직도 미국은 경건하며 신실한 국가이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미국 인구 중 44%는 교회공동체에 소속돼있다고, 종교여론조사정보협회(the Association of Religion Data Archives)는 말해준다.

〈다음호에 계속〉

올바른 역사교육만이 지침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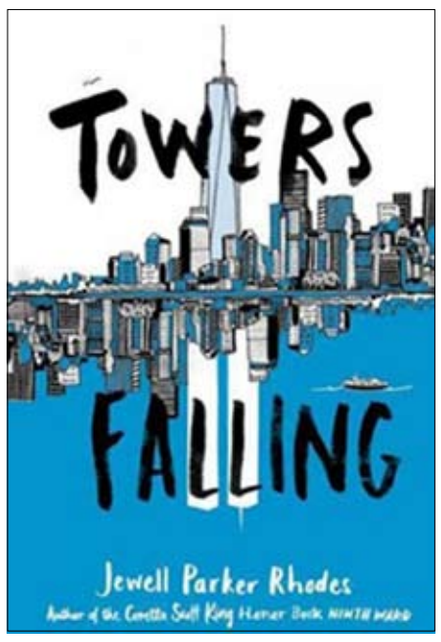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아이들이 다니는 그린필드 중학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9월 11일이 돌아오면 묵념을 하고, 간단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학생에서부터 교사, 교직원까지 모두가 주얼 파커 로즈의 소설 "무너지는 탑들(Towers Falling)"을 읽기로 했다.

이 소설은 뉴욕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9.11로 가족의 삶이 달라졌음에도 자신이 사건 자체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다. 학생들에 따라 영향 받은 정도는 다르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다. 학교 측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이 책을 읽음으로서 토론과 대화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9.11이 워낙 민감한 주제라 학부모들이 항의도 걱정이었죠." 그린필드 중학교 교감선생님의 말이다. 하지만 9.11은 뉴스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이니만큼 가정에서도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린필드 중학교도 미국 전역에서는 드문 케이스다. 대부분의 학교 수업은 당시의 충격과 공포, 현장 구조대원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다루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9.11이 어떻게 다



루어지는지를 연구한 노바사우스이스턴 대학의 셰릴 덕워스 교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9.11을 맥락 없이, 비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2011년에 나온 시민교육정보연구센터(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의 보고서 역시 교과과정 내 9.11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2001년 9월 11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물론, 당시의 공격과 미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쟁적인 주제들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미9.11기념회(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는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교사연수과정을 증설하고 있다.

덕워스 교수는 교사들이 9.11을 가르칠 때,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애국법과 자유,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슬람공포증과 같이 복잡하고 추한 문제들을 설명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9.11을 둘러싼 복잡성을 학교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선거철마다 편견과 잘못된 정보가 마구 떠돌아다니는 현재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덕워스 교수의 경고다.

〈2면에서 계속〉

도박이 금기시되는 사회에서는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를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실험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슐츠 교수는 이번 실험 결과만 갖고 사람들의 정직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는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직함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가장 부패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직함이라는 가치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겁니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대회활동 이야기 (1)

필자의 경우 자의 반 타의 반이긴 하지만 맡은 일이 많았다. 목회자의 텃밭은 교회목회라야 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동서남북을 차단한 채 오로지 목회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필자의 목회 정황이었다. 그때마다 목회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이어서 대회활동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내세우곤 했다. 그리고 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대외활동의 원칙

수를 셀 수 없는 교회 밖의 직임들을 맡았지만 언제나 교회목회 다음에 두었다. 그 어느 것도 교회 일을 제쳐 둔 채 올인하지 않았고, 대회활동 때문에 목회를 소홀히 하거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갈무리했다.

목회자는 누구나 교회 밖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없다. 이때 목회가 '주'라면 대회활동은 '객'이다.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면 안된다. '객'을 '주'로 삼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그네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 목회를 하나? 언제 기도하나? 언제 성경연구하나? 설교준비는 언제 하나?' 걱정스럽다.

총회 본부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연합기구 주변을 맴돌거나 드나드는 사람들, 그들 대다수는 할 일도 없이 일과처럼 반복한다는 것이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표현이다. 그리고 그네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말한다.

자랑 같지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교단총회를 섬길 때 공식회의가 있는 날 외에는 총회본부에 나간 일이 없다. 본부 안에 총회장의 휴식이나 숙박을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머물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방에 머물거나 숙박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총회장을 위해 책정된 여비나 판공비를 단돈 1만원도 쓴 일이 없다. 총회재정을 축내고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은 총회 일을 맡으면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맡고 있는 대학 이사장이나 언론사 이사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이사장직을 10년 동안 맡고 있지만 법인카드나 판공비를 쓰지 않았고, K신문사 이사장직을 6년간 맡았지만 회사 돈을 판공비 명목으로 쓴 일이 없고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내 것인 양 펑펑 쓰다가 도마 위에 오른 사람도 있고, 구설수에 오르내린 사람들도 있다. 내 것과 네 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 못하면 누구라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덫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필자가 교단 부총회장으로 피선된 것은 55세 되던 해 9월이었다. 지방에선 H목사님이 필자보다 이른 나이에 부총회장이 되었지만 서울에선 없던 일이었다. 두 번 세 번 피선되는가 하면, 예순을 넘어 일흔 정년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55세에 부총회장이 된 것을 두고 기적이라느니 관행을 깼다느니 말들이 많았다.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기 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지인이나 선배들을 만나 출마해도 되는지, 당선 가능성은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정작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넘어서야 할 산맥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상대는 S노회 H목사님이었다. 학벌이나 경륜이 필자보다 탁월한 분이었고, 노회나 총회 배경도 높았고, 나이도 필자보다 위였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선후배와 동역자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곳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요지의 전화들이었다. 그들이 왜 필자를 돕겠다고 나섰을까? 그것은 작은 정성이지만 20여 년 동안 선후배 동역자들을 돕고 섬겼기 때문이다. 미자립교회를 돕고, 자녀들 장학금을 마련해 지급하고, 시골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신학수업의 길을 터주고, 학비를 지급했다. 부흥회 사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건축헌금으로 헌금하고 자녀들 학비에 쓰도록 되돌려 주곤 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연의 줄을 잇고 교제하던 사람들이 각 지방과 노회에서 중견 지도자 되었고, 그들이 자기 일처럼 빚을 갚겠다며 나선 것이다. 천군만마의 원군을 사방에서 얻게 된 것이다.

iamcspark@hanmail.net

글로벌·뉴욕 여목연 창립 및 취임예배에 초대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글로벌 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가칭 글로벌 여목연)
창립 감사예배와 회장 취임식과 함께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가칭 뉴욕 여목연) 회장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양승호 목사 시무)
· 주소: 168-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 전화: 718-359-0166

한인여성목회자협회

준비위원장: 글로벌 여목연 연합회장 전희수 목사
뉴욕 여목연 회장 권금주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벼 락

구라파는 이제 우기철로 접어들고 있다. 우기 철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은 뭐니 뭐니 해도 벼락이 아닌가 한다. 지축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천둥과 벼락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낙뢰로 인해 매년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당한다고 한다. 2014년 낙뢰관측 정보에 의하면 상반기에 총 25897회 번개가 쳤고,11,266회 낙뢰가 발생했다. 가장 많이 치는 시간대는 16시요, 2608회를 쳤고, 가장 많은 달은 6월로 2809회, 그리고 도별로는 경기도가 36,913회로 최고 기록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벼락을 7번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섬머포드라는 영국 육군소령이 있었는데, 1918년 2월, 플랑드르에서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낙뢰를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벼락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전역한 그는 1924년에 2명의 친구와 낚시하고 있었다. 이때 다시 낙뢰를 맞았고 이번에는 그의 몸, 오른쪽 전체를 마비시켰다. 운명은 장난처럼 이어졌다. 1934년에 세 번째 낙뢰가 그를 내리쳤다. 그의 몸은 영구히 마비가 되고 말았다. 2년 후 죽은 그의 묘지를 낙뢰는 다시 공격했다. 낙뢰가 그가 묻혀있던 묘지에 떨어져 비석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지난 8월에는 노르웨이에서 벼락으로 순록 떼 300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일도 일어났다(2016.8.31일자 일간지). 참으로 벼락의 힘은 강력하다 싶다. 이처럼 역사상 벼락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거나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벼락으로 인해 놀라운 반전을 이룬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 말틴 루터다.

말틴 루터가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뵙고 대학이 있는 에르프르트로 돌아가던 1505년 7월 2일, 지금도 밀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슈토테르하임(Stotternheim)근처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저들에게는 당시 미래에 대한 꿈과 낭만이 가득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밀밭을 지나면서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하겠는지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다. 특히 루터는 법학을 목표하는 학도였으니 유명한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들이 대화가 한창 깊어지는 즈음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천둥 번개가 일어났다. 구라파는 구름층이 낮아서 천둥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랜 경험으로 익숙할 법도 한데 지금도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신학교 시절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천둥칠 때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곤 했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로마에 살아보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천둥과 벼락이 칠 때는 얼마나 굉음소리가 큰지 꼭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일어난다. 바로 머리위에서 벼락이 내리꽂는 것 같다.

지축을 흔드는 그런 식의 벼락이 떨어졌고, 그 벼락은 루터와 함께 꿈을 노래하던 친구를 저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벼락으로 인해 곁에 있던 친구, 방금 전까지 희망을 노래하던 친구가 죽었으니 루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루터는 너무 두려워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정신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했다. 믿음이 있었기에 서원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혁자 루터를 부르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벼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루터를 연구하는 학자는 벼락이 친구를 덮칠 때, 하나님은 루터에게 임재 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하셨다고 한다. 그 벼락이 내리친 자리에 1917년 2m의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성 안나여, 도우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기록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다양하신 방법을 사용하신다. 벼락이 내리쳐 친구가 사망한 자리, 그 자리를 통해, 한 사람의 위대한 개혁자 루터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루터로 하여금 늘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고로 개혁의 횃불을 들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있음을 보너스로 여겼다. 그러기에 교황청의 서슬 시퍼런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벌써 죽었어야 할 목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야 말로 벌써 죽었어야 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목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chiesadiroma@daum.net

푸/ 른/ 초/ 장

권영국 목사
(대흥장로교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Life is Chio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제로 태어나서(birth) 죽을 때(death)까지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알파벳은 C 글자밖에 없어요. 그 C가 뭘까? 선택(Choice)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제로 매일 일어날까? 말까? 부터 시작해서,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매일의 삶은 다른 말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서로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용히 저녁 강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길은 강둑을 따라 계속된 길로서 주위에 과수원이 있고,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로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면서 언덕 위의 번쩍이는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강둑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길로 가자고 했고, 다른 친구는 언덕 위의 불빛이 보이는 길을 가자고 서로 권하다가 다정했던 두 친구는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강둑길을 선택한 친구는 가는 내내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걸었으며, 가는 길에 길 옆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몰래 하나씩 따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막상 먹어보니 과일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이후로 그는 몰래 훔쳐 먹는 흥미를 갖게 되었고,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어떤 집 주인에게 들켜 주인을 살해하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사형수가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가 어느 날 감옥 안에 들어온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신문 1면에 웬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두 갈림길에서 서로 엇갈린 채 헤어졌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당시 언덕위의 불빛은 다름 아닌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주님을 영접했고 그 후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으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었다가 그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산길이나 험한 길, 계곡의 길,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할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평탄한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아니면 황금의 길 붉은 양탄자의 길이냐? 악취 나는 도랑과 같은 길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갈래 길입니다. 길의 선택은 그 결과를 결정짓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길이라고, 많이 간다고 생각 없이 따라 갔다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 14: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오직 모든 앞일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생명과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말씀하시다가 7:13절부터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수훈을 4가지 은유적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1)13-14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은유적 말씀 2)15-20절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은유적 말씀 3)21-23절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자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은유적 말씀 4)24-27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은유적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은유적 말씀은 모두 종말론적 심판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1. 좁은 문-결단과 삶의 변화 실천

산상 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은유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 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구경하고,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와 강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의의 결론은 지식의 습득에 있고, 설교의 결론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준 강의는 잘한 강의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좁은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도 구체적인 실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범하는 넓은 문이라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결단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구별된 자(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줍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길로 계속 나아가든지, 이제는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길입니다. 넓은 문(넓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가는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결단과 변화가 없이 살아가면 그냥 넓은 길로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넓은 길)은 바꾸어 말하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인생을 흘러가게 하면 "표류하는 인생" 표류하는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좁은 길)이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내버려두지 않고 결단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속사람은 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도 생활습관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은행계좌를 한번 만들면 아무리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거래은행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지내온 습관들에 대해서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좁은문"의 말씀은 아무런 변화와 결단이 없는 삶이 신앙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연속극이나 영화보고 인생의 작전이 바뀌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작전이 바뀌어야 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도 결단도 필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던 습관대로 가면 그게 넓은 길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의식적인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조금 불편해도 결단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 좁은 문-길과 생명되신 예수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의 결론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4거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중의 하나는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고, 정리 정돈이 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나무로 우거진 멋진 길이고, 그늘이 져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황금으로 깔려있는 럭서리한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이게 도대체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이 울퉁불퉁하고 길같이 보이지도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4거리 가운데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의 모양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한 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산으로 목적지를 정했으면 그 길이 고갯길이냐? 평탄한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닿아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냐? 를 묻지도 않고 그냥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넓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선택하여 갔는데, 그 목적지가 멸망과 지옥이라면 그 길로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가기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도 "그 목적지가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어디서도 빨리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습니다. 즉 죄인이 결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 땅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영생의 길은 좁은 길도 아니고, 막힌 길이었습니다.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생명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헛된 수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힘들게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휴가도 안가고 평생 성수주일하고, 1년 365일 아파도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남들보다 많은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 기독교 신문에 연재되었던 '어느 맹 집사'의 하루라는 만화에 보면, 하루 종일 유명한 절간을 다니면서 한밤중에 몰래 숨어들어가서 불상마다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도망 나오는 것을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좁은 문은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 중의 하나가 성전의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막으셨던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괴로워도 율법을 지키고, 선행과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만이 영생으로 향한 좁은 문이 됩니다.

3. 좁은 문-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의 선택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삶의 기준이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에는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때에는 고민할게 없어요. 매일 그것만 매고 나가면 되요. 그런데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지금은 수십 개가 되니까 아침마다 무엇을 선택하여 매야 어울릴까? 고민이 많습니다. 옷이 한두 벌밖에 없는 여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고민할게 없어요. 그런데 옷이 옷장에 수십 벌 수백 벌로 가득하면 매일 아침의 선택이 괴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택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1)룻기에 나오는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은 모두 그 남편들인 말룐과 기룐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두 자부에게 나오미는 각자 자기 민족에게로 가서 새로 출발하라고 권할 때에, 오르바는 모압 자기 땅의 새 남편을 구하여 살 길을 선택하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의 선택하였습니다. 룻의 삶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줍기를 하며 겨우 겨우 살아갔지만, 하나님 선택의 결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으로 세워집니다.

2)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외적으로 보이는 풍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언약의 축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과 더불어 고통을 당해야 했고,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야 21:8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있습니다. 지금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평탄한 길, 욕을 안 먹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오늘날 나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욕 안 먹고, 심신이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 모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총각시절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였는데, 친구 동창들이 연휴가 되는 주일날 놀러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두 놀러갔고, 자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서 빠질 수가 없어서 주일날 봉사를 마치고 춘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연휴에 일찍 놀러가기로 한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날 봉사를 마치고 저녁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트니까 특별 뉴스가 나오는데 주일 오후에 춘천에서 보트에 탔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자기가 함께 여행하기로 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익사자 명단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갔더라면 그날 오후에 틀림없이 그 배를 타고

있었을 텐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놀러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사님은 평생 두 갈래 길에서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vdkwon@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수저계급론과 갑을관계를 가진 세상에 대해

-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수용과 믿음 -

사고에 고착되어 역동적인 신앙의 세계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주어진 배경과 개인 신앙의 열정을 함께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후자에 더 큰 방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를 설명하는 한마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한다. 형제들에게는 버림받은 요셉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신수성가(神手成家)'의 축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수저계급론과 갑을관계

골품제의 비슷하게 신분을 규정하는 말들이 한국사회 뿐 아니라 이곳 미주에서 조차 유행하는 말이 있다. '수저계급론'으로 통칭되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이다. 두 가지 수저의 분류 기준은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해 주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그 능력치가 높으면 금수저, 낮으면 흙수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골품제처럼 자식들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자식을 통해 그들의 부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흙수저로는 음식을 먹기 어렵고 물려줄 수도 없다. 부모 도움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데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라는 자괴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가 또한 '갑을관계'이다. 현 사회의 새로운 주종관계로 규정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인데,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태도와 자세를 덧붙이는 '질'이라는 용어를 통해, '갑질'이라는 말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 혐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들이 되었다.

공생의 지혜

흙수저와 금수저, 갑과 을의 관계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무형의 구별이나 현상적인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룰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존재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지혜는 무엇인가? 갑을 관계의 경우는, 갑은 을에 대해 관용하고 도와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을은 이를 감사하며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극복하여서 갑을의 관계가 공생과 협력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수저계급론'도 마찬가지이다. 출생적 배경은 스스로의 의지의 결과가 아님에도, 태생적인 금수저의 위치를 확보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허락된 조건에 대해 감사하면서 연약한 흙수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받아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위치가 아닌 주는 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공생의 지혜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갑이든 을이든그 관계가 고착화된 형태로는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운명론과 하나님의 주권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철학자는 결국엔 두 부류가 된다고 말하였다. 운명론자 아니면 허무주의자라는 것이다. 니체는 운명론자였는데, 태양이 서산에 지는 것처럼 운명에 맡기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를 기투(Entwurf)와 피투(Geworfenheit)된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에 의해 출생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즉, 기투된 존재로서 세상가운데 이미 던져졌으니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운명론적인 실존을 드러내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서산에 필연적으로 지는 태양이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던져졌으니 산다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운명이나 허무함에서 실존을 말하지 아니하고, 섭리(Providence)를 받아들이되, 기계적으로 멈춰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적 이끌림을 받음으로 삶에 매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말한다.

현재상황의 긍정

바울은 각기 처한 삶의 형편들이 다양하다고 할 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말한다.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처한 그 특정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그럴만한 위치가 되면 믿음의 일을 감당하려는 경향을 본다. 부교역자 시절에는 담임목사가 되면 이렇게, 장로가 되면, 세상에서도 원하는 성공을 하고 나면 뭔가를 할 것처럼 하나님에게 조건을 거는 경우들을 본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 신앙은 열매가 아름답지 못함을 본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음 형편을 보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바울과 요셉의 수용

바울은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후12). 그 때가 바울의 사역의 절정기였는데 건강의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병의 고침을 약속받는 대신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12:9)는 응답을 받는다. 한마디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아프면 아픈 채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말한다. 자기형편과 처지 안에서 불평원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다.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의 열매를 거둔 바로 그때만 내 인생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말이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수용의 자세이다. 그는 고향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누렸던 자색옷과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았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열심히 보디발의 집의 마당을 쓸고 닦았을 것이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억울한 강간미수범의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고위관료들이 갇히는 지하 정치범 수용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 과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다. 애굽에 팔려오자마자 총리가 되었다한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애굽말도 못하고, 애굽문화도 모르고 일이 안되는 것이다.

〈7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같은 교회에 있어 조만간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처녀도 저를 좋아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프로포즈나 결혼 풍습은 어떠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텍사스에서 김

A: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결혼의 중매자(Match maker)라고 부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일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짝을 지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관습은 주로 3가지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1)정혼식(약혼식)입니다. 2)정혼을 하고나서 신랑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방 즉 처소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와서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약 1년 정도 서로 둡니다. 3)때가 차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날의 유대 청년들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만남은 1년 중 7번 있는 절기마다 7일씩 축제를 할 때 그 기간 중에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맞으면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락을 위해서 예비 신랑은 자기 가정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친척 하나를 대동해서 예비 신부 집으로 갑니다.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첫째, 한 잔의 포도주를 따를 수 있는 포도주 가죽부대가 있어야 합

유대인 신랑은 포도주가죽부대, 지참금, 첫 번째 결혼서약서 준비

니다. 둘째,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지참금 즉 은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결혼 첫 번 서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부 집에 도착하면 예비 신랑은 가장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어느 지파, 누구의 집, 누구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으로부터 이 목적을 들은 예비신부 아버지는 딸을 따로 불러서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지적인 요소를 묻습니다(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둘째, 정적인 요소를 묻습니다(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있는지…). 셋째, 의지적인 요소를 묻습니다(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 질문을 딸에게 합니다. "내가 네게 이 결혼을 허락해주기를 원하는가?" 이 때 딸의 얼굴이 빨개지면 아버지는 들어가서 신랑에게 결혼을 승낙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부의 값을 정하는 순서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신랑은 뒤로 물러나고 신랑을 따라온 신랑 측 대리인이 나서게 됩니다. 신부에 대한 사랑과 가치에 대한 흥정인 것입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예비 신랑은 그가 가지고 온 첫 번째 결혼서약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서 신랑이 가지고 온 포도주 한 컵을 신부 앞의 테이블에 두면 신부는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신다는 것은 신랑의 고백을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반잔을 마시고 난 다음 몇 방울의 포도주를 그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죽음만이 두 사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예비 신랑은 나머지 반잔을 신부로부터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은과 금의 지참금을 헤아려서 예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뿔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아버지로서 축복권을 행사하여 딸과 그 예비 신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러므로 '정혼식'은 끝을 맺게 되고 이들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자기의 보혈의 피를 지참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포도주잔)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수단의 아랍화된 부족들(Arabized Tribes)

수단에 거주하는 10개의 아랍화된 부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아랍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족집단 중 하나이다. 7세기와 11세기에, 아랍인들은 북 아프리카를 침공했으며, 많은 부족들과 이슬람 이전의 사하라 유목민 집단들을 대체했다. 이러한 침략은 또한 오아시스와 사막 북부의 무역 중심지나 그 근교에 살던 흑인 농부들과 유태인 예술가들, 베르베르 피난민들의 수세적인 공동체를 덮쳐서 그들을 흡수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수단의 "아랍화된" 부족들을 포함하여 북 아프리카 전역에 많은 다양한 아랍 집단이 생기게 되었다.

아랍인들은 그들의 이슬람 종파, 아랍 방언, 지역에의 적응도에 따라 수천 개의 종족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눠진다. 수단의 아랍화된 부족의 대다수는 아랍어의 한 형태인 수단어를 사용하지만, 단 하나의 집단인 몽갈리즈 아랍인들은 좀 다른 형태인 크레올 아랍어를 사용한다. 수단의 공식어인 아랍어는 수단의 정부 지도자들과 사업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삶의 모습

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발달이 덜된 나라 중 하나이다. 그 국민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농사와 가축 사육에 의존하고 있다. 아랍화된 부족 대부분에게 농업은 경제의 기반이 된다. 기장과 수수가 참외, 호박, 오크라, 참깨, 면화와 함께 주요 작물이다. 또 소, 양, 염소, 당나귀, 개도 기른다. 소와 염소의 젖을 짜서 치즈와 버터를 만든다.

아랍화된 부족 모두가 농부는 아니다. 아랍화된 미도브와 몽갈리즈 아랍인들과 같은 일부 부족은 유목민으로서, 보다나은 목초지를 찾아 소와 낙타 떼를 몰고 이곳저곳으로 여행한다. 하사니아와 후쎄이나트와 같은 다른 아랍화된 부족들은 수단에서 사업가와 상인으로서 성공했다. 이 집단들은 그들 지역 도시의 상업 활동에 깊이 종사하고 있다.

아랍화된 부족 대부분은 영구적인 정착촌이나 마을에서 산다. 그들 가옥은 단순하게 둥근 오두막에 초가지붕을 하고 있다. 유목민 집단은 계속해서 이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시 캠프에서 산다. 그 캠프는 대개 돔형의 주거로서 나뭇가지로 만들고 풀로 덮는다. 소수의 상인과 사업가들이 사는 도시에서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장방형으로서 양철 지붕을 하고 있다.

수단의 아랍화된 부족은 다른 아랍 공동체의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는다. 전형적으로는 샌들을 신고 면으로 된 터번이나 모자를 쓰며 젤라바(djellabas)라고 하는 소매가 길고 허리까지 오는 면 셔츠 같은 옷을 입는다.

이러한 집단들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아랍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그들의 삶은 출생, 결혼, 사망, 아이들의 첫 이발과 할례와 같은 중요한 의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식 중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은 결혼식이다. 일부다처제가 아랍화된 부족들 사이에 흔한 관행이지만, 이슬람 율법에 따라 4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는 없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시부모와 함께 살거나 근처에서 사는 것 일반적이지만, 어떤 부족에서는 첫아기를 출산한 직후까지는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살기도 한다.

신앙

632년 모하메드가 사망하자, 아랍인들은 아라비아의 사막 목초지에서 일어나 동쪽과 서쪽의 땅을 정복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의 지역부족과 혼인을 하고 그들에게 이슬람을 전했다. 이 부족들은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전통과 관행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슬람의 확산은 계속됐고 종교학교가 많이 세워지던 16-17세기에는 보다 더 심화됐다. 오늘날 아랍화된 부족 거의 모두가 100% 무슬림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수단은 위기에 처한 나라다. 이슬람이 강한 북부와 기독교가 지배적인 남부 사이의 갈등은 최근 여러 번에 걸쳐 불길에 올랐다. 내란은 극심한 식량부족을 초래했고 피난민의 물결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죽었다.

아랍화된 부족 대다수는 어떤 선교단체에 의해서도 선교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알려진 성도도 없다. 복음의 빛을 들고 이 소중한 민족의 마음을 뚫기 위해서는 한층 증진된 복음 사역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안갯속 미국대선 'D-50일' …TV토론에 사활

미국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전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손쉽게 이길 분위기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좌충우돌 공세에 다시 백중세가 됐다.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하는 부동층의 표심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작되는 TV 토론과 클린턴의 건강 상태가 남은 기간 핵심 변수로 꼽힌다.

LA타임스와 USC가 지난 16일 일반유권자 25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트럼프를 찍겠다는 응답은 47%로 클린턴 지지(41%)를 6% 포인트 압도했다. 지난 7월 양당 전당대회 직후 클린턴은 트럼프를 8-12% 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4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46%로 클린턴(45%)을 제쳤다. 13일 CBS방송과 뉴욕타임스 공동조사에선 양자 대결에서 클린턴 46%, 트럼프 44%로 나타났다. 군소 후보를 포함한 4자 대결에선 클린턴과 트럼프가 42% 동률이었다.

전당대회 직후 잇단 실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트럼프는 선거캠프를 재정비하고 공약 발표와 멕시코 대통령 면담으로 이슈를 선점했다. 그사이 클린턴은 수세적으로 대응하며 이슈를 좇는 데 그쳤고, 9·11테러 추모행사에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면서 지지율도 휘청거리게 됐다.

주(州)별 승자독식 구조에 따른 선거인단 확보에선 클린턴이 아직 우위다.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클린턴이 200명, 트럼프가 164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전체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된다.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WP)와 서베이몽키 조사에서 클린턴 244명, 트럼프 126명 확보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의 추격세가 완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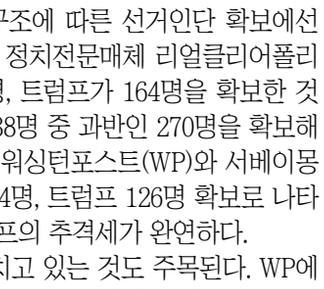
경합주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하이오·플로리다·아이오와주에서 클린턴을 앞섰다. 특히 오하이오주 우세가 트럼프에게 희망적이다. 역대 대선에서 존 F 케네디를 제외하고 오하이오에서 이긴 후보 모두가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남은 50일 동안 판세를 뒤흔들 변수는 3차례의 TV 토론과 클린턴의 건강이다. 오는 26일과 10월 9·19일 열리는 TV 토론은 부동층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휘청거린 뒤 나흘 쉬고 15일 유세를 재개했지만 한 번 더 건강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대권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TV토론이 중요한 것은 역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첫 TV토론 무대였던 1960년 민주당 존 F 케네디와 공화당 리처드 닉슨간 대결은 6천500만여 명이 지켜봤다. 젊고 당당했던 케네디가 역전을 일궈내는 순간이었다. 1980년 민주당 지미 카터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의 대결은 8천만 명이 시청했다. 역대 최대였다.

이번 토론은 1억 명이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가 유권자 1천861명을 상대로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73%가 첫 토론을 지켜볼 것 같다고 답했다. 부동층이 30%에 달하는 만큼 TV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맨해튼 테러는 또 '외로운 늑대'의 소행



뉴욕 맨해튼 폭발사건도 또 다른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용의자 아흐마드 칸 라하미(28)를 총격전 끝에 체포했으나, 외부 세력과 연계된 조짐을 찾지 못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9일 라하미가 체포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용의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윌리엄 스위니 미 연방수사국(FBI) 뉴욕지소 부소장은 "라하미가 테러조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도 라하미가 테러분자나 출국금지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테러와 관련한 '요주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한 라하미는 뉴저지 뉴어크 공항에서 가까운 엘리자베스 시에서 '퍼스트 아메리칸 프라이드치킨'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하미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 위층에서 살았다. 라하미의 형제들도 가게 운영을 도왔다.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라하미를 대부분 친절한 청년으로 기억했다. 단골손님이 돈이 없으면 닭고기 요리를 공짜로 주기도 했다고 이웃들은 말했다.

그러나 라하미는 4년 전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온 후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에서 돌아온 후 수염을 기르고 무슬림 전통 복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게 뒤쪽에서 기도를 하면서 다소 근엄한 태도를 보이는 등 종전과는 변화된 모습이었다.

가게 주인인 라하미의 아버지는 24시간 영업을 하다가 소음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밤 10시에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자, '무슬림이라 차별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뉴저지 린든에서 라하미를 체포했다. '가게 앞에 잠들어 있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수배 중인 라하미와 비슷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 30분 만이었다.

라하미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라하미를 깨우며 손을 들라고 명령하자, 권총을 꺼내 경찰을 향해 쏘는 등 저항했다. 방탄복을 입고 있던 경찰이 곧바로 응사하자, 라하미는 도주했다. 다른 경찰이 가세하면서 라하미와 경찰들 사이에 총알을 주고받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라하미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총격전이 끝났다.

인근 '유니버시티 병원'으로 옮겨진 라하미는 다리의 총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하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경찰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뉴욕 폭발용의자, '철의 포위망' 8천개 감시카메라가 잡아

미국 경찰이 뉴욕 맨해튼 폭발사건의 용의자를 잡는데 감시카메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 NBC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경찰은 뉴욕 지역에 촘촘히 깔린 감시카메라들의 영상을 분석해 아흐마드 칸 라하미(28)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라하미는 뉴욕에 깔린 8천 대의 공공 및 사설 카메라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감시카메라에는 맨해튼 첼시 지역의 23번가 도로변에서 폭발이 발생했던 17일 오후 8시 30분께 라하미가 폭발지점 인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압력솥 폭발물이 발견된 27번가 거리에서도 라하미의 모습은 카메라에 잡혔다.

수사당국은 폭발이 있었던 맨해튼의 감시카메라에 라하미의 모습이 잡힌 데다 폭발 현장에서 그의 지문을 발견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결국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뉴저지 주 북동부에 있는 린든에서 라하미를 총격전 끝에 체포했다.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준 감시카메라는 뉴욕을 강타한 2001년 9·11테러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9·11 테러 이후 뉴욕시는 1990년대 영국에서 시행한 '철의 포위망'(Ring of Steel)을 본떠 월스트리트가 있는 로어 맨해튼의 금융기관과 경찰의 감시카메라를 통합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다.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치안 강화책은 이번에 폭발이 있는 첼시 지역을 포함한 미드타운 맨해튼은 물론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은 "뉴욕시의 어느 거리나 어떤 사건 현장을 가더라도 감시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 8천 대가 찍은 영상은 분석을 위해 '로어 맨해튼 보안합동센터'로 보내진다. 센터에는 생화학 감지기와 방사선 감지기, 발포 탐지기 등도 있다. 뉴욕 경찰은 카메라와 감지기, 차량 번호판 인식기에서 얻은 자료와 범죄 기록을 활용한 범죄감시시스템(DAS)으로 범죄 예방 및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 수상한 가방이나 도난 차량, 위험한 물질 냄새와 관련한 경고를 받는 '대시보드' 시스템도 뉴욕 경찰은 갖추고 있다.

'피바다' 방글라 수도, 이슬람 '희생제' 때 배수 안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거리가 '피바다'로 변한 모습이 화제가 됐다. 15일 미국 CNN 뉴스와 BBC 등 여러 외신은 다카에서 붉은 핏물이 가득 찬 도로를 달리는 차와 바지를 걷고 지나가는 주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도 다카 시내 도로에 붉은 핏물이 가득 흐르는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 사진은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아드하'(희생제)를 맞은 13일 다카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희생제는 쿠란에 등장하는 이브라힘이 신께 복종의 뜻으로 큰아들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신이 그의 신앙심에 감복해 장자 대신 새끼 양을 제물로 바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이슬람교도들은 이날을 맞아 양과 염소, 소 등을 피를 완전히 빼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뒤 가족, 이웃과 나눠 요리해 먹는다. 기부자들은 희생제에 맞춰 양과 염소 등 가축을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이번 희생제를 맞아 다카에서만 10만 마리가 도축됐다고 BBC는 전했다. 문제는 이날 오전부터 온종일 비가 내린 데다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터, 주차장, 집 앞 등에서 마구잡이로 도축하면서 도축 부산물과 피가 비에 섞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리를 뒤덮으면서 벌어졌다.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마저도 "붉은 강처럼 보였다"면서 "불쾌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 당국이 축제를 앞두고 배수 문제에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카 시민 타레크 아메드는 시에서 1천 곳을 도축장소로 지정했다는데 실제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일부 동물 보호운동가들은 희생제를 맞아 집단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며 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 난민 어린이 · 청소년 600만명중 62% 학교 못다녀

세계 곳곳에 있는 난민 어린이·청소년 600만여 명 가운데 절반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난민 학령 인구의 62%에 이르는 370만 명이 다닐 학교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교육을 받는 난민 어린이는 전체의 50%로 세계 평균인 90%보다 현저히 낮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난민 청소년은 22%에 불과하며, 대학에 다니는 난민은 1%에 그쳤다. 세계 평균 중·고등학교 진학률(84%)과 대학 진학률(3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난민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차드, 콩고, 에티오피아, 케냐, 레바논, 파키스탄, 터키 7개국에 산다.

보고서는 난민의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는데 이들 국가는 자국 어린이 교육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터라 난민 어린이 교육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내전과 같은 분쟁이 한 국가의 긍정적인 교육지표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시리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하기 전 시리아 어린이의 94%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내전이 악화하면서 올해 6월 말에는 학교에 다니는 시리아 어린이 비율은 60%로 뚝 떨어졌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는 "난민 어린이 수백만 명이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국제사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본적인 생존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은 난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와 언젠가 돌아갈 고국에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여성 지하드'…알카에다는 반대 vs IS는 부추겨

수니파 무장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예멘 알카에다)가 서방 내 테러를 촉구하면서도 여성 혼자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벌이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AQAP의 '단독 지하드팀'은 최근 인터넷으로 유포한 온라인 선전물 '인스파이어 가이드'를 통해 "무자히딘(이슬람 전사) 형제라면 우리의 무슬림 자매가 혼자서 어떤 지하드 작전에 가담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이달 초 파리 노트르담 성당을 겨냥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여성 4명이 가스통으로 테러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한 AQAP의 평가다. AQAP는 이들 여성이 '무슬림의 적'인 프랑스를 공격하려 한 점은 칭송했으나 "우리의 고결한 무슬림 자매의 명예를 침략자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하드의 뜻을 깨닫기 위해 여성이 지하드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는 테러리즘 격퇴를 명분으로 한 무슬림 자매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며 "프랑스의 무슬림 형제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프랑스를 향한 지하드 작전을 거행하라"고 선동했다. 이른바 '여성 지하드'에 대한 알카에다의 이런 시각은 경쟁조직 IS와 다르다.

IS는 여성의 테러도 부추기고 있다. IS를 대변하는 매체 아마크통신은 케냐에서 여성 3인조의 경찰서 공격에 대해 13일 "IS의 여성 지지자들이 십자군을 공격하라는 부름에 응답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검찰은 9일 이번 노트르담 성당 테러 미수와 관련, 시리아의 IS가 이들 여성에게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IS와 알카에다는 무슬림에 대한 공격에도 시각차를 보여 왔다. IS는 시아파 무슬림을 이단이라며 공격해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알카에다는 종파가 다르더라도 무슬림에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비종교적이라고 해석한다.

김장환 목사, 유엔국제조찬기도회서 연설

극동방송은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지난 13일 제31회 유엔국제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한 사람의 힘(The Power Of One Person)'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양인이 유엔국제조찬기도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

김 목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1965),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1820-1910) 등을 언급하며 "한 사람이 문화 인종 지리를 초월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친절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면서 미군 칼 파워스 상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작은 소년이던 나를 미국으로 초대해 9년간 가르치고 돌봐주었던 파워스 상사의 사랑을 통해 내가 여러분 앞에서 연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끝으로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재외공관장교류협회가 주관한 기도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 등 세계 각국 대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7) -b

[지난 회 요약] 누르시아의 베네딕트(Benedictus of Nursia, 480-543)는 서방교회 수도생활의 전통을 확고히 세운 인물이다. 로마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어 3년 동안 동굴에서 지내면서 고행의 시간을 보냈다. 명성을 얻으면서 비코바로 수도원의 원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수도사들에게 경건에 대한 열망이 그리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베네딕트는 몬테카시노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수도원을 세웠다. 그는 "베네딕트 규칙서"를 작성하여 모든 수도사들이 경건에 대한 열망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길 원했다. 공동기도, 성경읽기, 그리고 노동이다. 이 세 가지는 향후 서방교회 수도원운동의 핵심사항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경건한 삶에 대한 기본정신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공동기도

베네딕트가 수도사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과거 광야 수도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와 명상으로 지내던 경험을 지녔던 그였기에,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기도에 할애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가 수도사들에게 기도의 삶을 강조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베네딕트가 중시했던 것은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다. 그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요구하였다.

공동기도가 포함되어있는 "베네딕트 규칙서"의 8장부터 20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미 수도사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겸손한 태도이다. 수도원에 규칙이 제정된 이유와 수도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 채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였다면, 반드시 질서를 지킴으로서 공동체 생활의 목적을 함께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다.

대수도원장은 반드시 삶으로 모범이 되며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수도원들은 대수도원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수도사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하였다. 베네딕트는 자신의 생각보다 성경에 근거하여 규율을 제정하려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에는 성경구절을 제시함으로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하려하였다. 특히 5장부터 7장은 본격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겸손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순종을 최고의 겸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사들은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12개 단계로 구성된 "겸손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아파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놓여진 10단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내어놓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참된 겸손이란, 지속적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도구이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포함한다.

베네딕트는 이 시간에 수도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였기에, 개인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일종의 '기도의 규율'을 정한 것이다. '공동기도'라 함은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율이란 뜻이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다. 주중과 주일의 내용이 다르다. 낮과 밤의 내용이 다르다. 평일과 성일의 내용이 다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수도사들은 시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를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기도시간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의 연장이라는 개념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

■ 성경읽기

수도원 생활에서 성경읽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였다. 성경 자체는 물론 교부들의 성경연구에 대한 글을 함께 읽도록 하였다. 모든 수도사들은 매일 다른 일을 멈추고 약 2-3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 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수도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수도사들은 성경의 진리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중시 하였다. 그러나 베네딕트는 수도사들에게 집중하여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였다.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글을 읽는 것과, 타인이 읽을 때에 그 내용을 경청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성경읽기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이 함양되고 성경적 체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에 수도원의 존재는 독보적이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신학자는 대부분 수도원 출신이었다. 성경연구를 통한 신학의 발전하였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노동

베네딕트 수도원운동의 기도와 성경읽기를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도하고 일하라!"로 간단히 정의한다. 수도사들에게 영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육체적 노동을 이와 버금가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수도사들은 노동을 멀리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노동이 수도원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흥미로운 것은 "베네딕트 규칙서"에 성경읽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48장에,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함께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노동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이 수도사의 삶에서 결코 구분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48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게으름은 정신의 원수이다."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 나를 먹여줄 것을 생각한다. 24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결코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베네딕트는 영적인 훈련과 함께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나아가서 수도사들에게 노동은 문자 그대로 먹고사는 수단이 되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수도원운동이나 수도사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었다. 아직 그들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다. 수도원이 훈련의 장소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베네딕트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병행하면서 바쁜 삶을 살게 함으로서, 수도사들이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향후 수도사들에게 물질을 기부하는 손길이 생겨나면서, 중세 수도원 역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알고 있다. 아무튼 물질의 힘은 대단하다. 건설적인 면보다, 파괴적인 면이 더욱 강한 것이 사실이다.

베네딕트규칙서 '공동기도, 성경읽기, 노동'이 수도원운동의 핵심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겸손한 태도 회복하는 것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1:29, 16:24, 디모데전서 4:7-11, 디모데후서 2:1-13,

신앙의 길을 걸어하는 것은 끝없는 도전과 겨루어 싸워하는 힘든 과정이다. 원수 마귀는 주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기 때문이다. 24시간 영적전쟁을 싸워야 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을 싸울 준비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 원수가 우리가 지닌 약점을 너무도 잘 안다는 것이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준비가 되지 않아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다름 아닌 나태함이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더욱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도리어 신앙이란 수단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태도를 가지려 한다.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려한다.

나태함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영적인 무장을 해체하려는 본성을 거부하고 감출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려하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가능할까?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해온 수도원의 전통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베네딕트의 기본정신을 우리의 경건한 삶에 좋은 참고사항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말씀 자체와 내용 있는 기도에 전념하며 나를 돌아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도록, 특히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실천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작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

covenantcho@yahoo.com

〈5면에서 계속〉

그런데 그가 억울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 과정을 수용하고 지하 감옥에 들어감으로 그곳에서 고급 정치 관료와 교제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고급 애굽어와 문화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았던 것이다.

믿음과 변화의 소망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수용성에만 머물게 되면 계급구조처럼 고착화되어 믿음의 역동성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의 현재적 상황을 긍정하고 수용하며 변화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성을 소망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현재의 고착된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삶은 바라는 것, 소망할 것이 있는 삶이다.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 소망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생업의 일들과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고착화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하고 수용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의 열매를 향한 소망을 기대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의 무릎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생기와 은혜로 충만하게 한다. 염려는 마음을 조각조각 나뉘게 하지만, 소망은 염려 많은 제한된 현실을 변화의 열매로 채워가도록 우리를 견인한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수용, 긍정, 소망

삶의 복잡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변화의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계급론과 신앙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어색한 골품제, 갑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단편을 생각해보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수용해야 한다. 긍정해야 한다. 공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 역동성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변화의 열매를 보기까지 달음박질하는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인 부재의 조건이 있다 하여도, 마침내, 요셉처럼 바울처럼 고통스런 차별된 삶의 환경을 지나 회복된 주의 백성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2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정직한 리더의 올바른 리더십을 절규한다

절대 진리의 상실, 비 진리의 득세

이 시대는 IT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과 SNS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한마디로 삭막한 시대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굶주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직한 리더의 올바른 리더십'이다. 20세기를 가리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 부르고, 짧은 기간이지만 21세기를 가리켜 트랜스모더니즘(Transmodernism)이라 부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절대 진리의 상실'이라고 한다면, 트랜스모더니즘은 '비 진리의 득세'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큰 후유증으로 병들어 있다.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을 혼란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혼합주의(Syncretism)이다. 포스트모던은 모든 종교의 통일과 모든 종교의 일치를 주장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신앙 같은 것은 무관심하고 사랑, 희생, 구제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한다. 둘째, 모호성(Ambiguity)이다. 포스트모던은 알쏭달쏭하다.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 매사에 모든 것을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셋째, 깊이가 없다(Shallowness). 단순한 감동만 주지 분명한 결단이 없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지적 쾌락주의에 빠진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진리가 상실되고 진리 아닌 것이 활개치는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한 시대에 리더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

무관심 시대의 비극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우리 모두는 소망가운데 오늘도 Good News를 기다린다. 살아가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없다면 삶은 삭막하다. 다른 사람들과 감동을 나눌 수 있고 하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는 귀한 사람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리더인 것이다.

중국의 어느 시골마을 버스 안에서의 일이다. 험악하게 생긴 두 건달이 예쁘게 생긴 여자를 희롱한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있었지만 모두 모른 체 했다. 급기야 두 건달은 운전사에게 정지할 것을 명하고 말을 듣지 않자 그를 폭행한다. 그리고 두 건달은 버스에서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 건장한 남자 수십 명이 버스 안에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정의롭게 나서지 않았다. 그냥 차창 너머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그 광경을 구경만 했다. 왜냐하면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칼이라도 맞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나서서 건달들과 싸운다. 건달들은 청년을 칼로 몇 차례를 찌르고 달아난다. 여자가 울면서 옷을 차려 입는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자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었고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관심한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사가 심한 폭행을 당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여자가 헝클어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았다. 그때, 피를 흘리며 청년이 차에 타려고 하자 여자가 소리친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겁니까?"라며 그 여자는 청년에게 화를 내고 버스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여자가 운전하는 버스는 출발한다. 청년은 고통스럽게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자동차 사고현장을 목격한다. 교통경찰관이 말하길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고 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 방금 자신이 타고 왔던 바로 그 버스였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모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 청년을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는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면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무관심의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특별히 리더는 이런 무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려는 이들의 폭력과 무서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억지로 무관심하며 고통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을 부린다. 경쟁자를 비방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모함을 일삼는 지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무늬만 리더인 자들이다.

암이나 백혈병보다 더 무서운 병

무관심은 무감각으로 발전한다. 비 진리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함께 사는 사회에서의 윤리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로 가슴아파하거나 관심 갖지 않는다. 단지 그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자기만 안전하면 되고, 자기 가족만 건강하면 괜찮다. 사람들은 "무관심하면 안 된다.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 무기력해지는 것은 "나 혼자 나서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 때문이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두 눈 가진 토끼가 한 눈 가진 토끼 마을에 가서 병신 소리를 듣게 되니 한 쪽 눈을 빼 버렸다고 한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해졌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말하며 포기해버린 지 오래다. 나 혼자 아무리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 인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이 시대의 분위기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 바로 눈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타이르는 사람이 없다. 요즘 아이들 잘못 건드리면 아이들이 드세고 무서워 잘못하면 나만 다친다는 생각이 이 세상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의 3무 시대에 현대인들은 암이나 백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인간이 무관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만사가 다 무감각해진다. 만사를 무감각하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정직한 리더의 올바른 리더십'의 출현이 더욱 간절하다.

정직한 리더의 올바른 리더십을 절규한다

무관심과 무감각 그리고 무기력이 난무하는 트랜스모더니즘 시대의 리더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가? 첫째로, 명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지도자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겉만 화려한 이야기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찌할꼬?"하는 신음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둘째로, 삶을 통해서 감동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한다. 행동으로 이끌지 못하는 감동은 죽은 것이다.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며 남의 좌절과 실패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이는 많지만 정작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성도는 드물다.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헌신적이고 청교도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시대적 함정을 피하는 비법은 진실된 사람을 통한 온전한 헌신이다. 셋째로, 세상의 악의 무리에 진리로 대항하는 강력한 리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한 리더가 등장할 때 이 사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조리와 모순과 무관심은 무용지물이 되어갈 것이다.

리더여, 낙심해 쓰러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여라.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소리 없이 존재하는 구성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리더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여줄 때이다. 말을 걸어주고, 아무 일 없어도 안부 인사라도 하자. 손을 잡아주고, 힘찬 악수를 나누는 것이 지도자로서 관심의 시작이다. 웃어주는 것이 관심이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관심이다.

리더여, 이기적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완비하라. 인격이 성숙한 리더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 아직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로 충만한 리더들이여,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희망 그리고 향기가 되어라. 절대 진리가 상실되고 비 진리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정직한 리더의 올바른 리더십'을 절규(cry loudly)한다.

sondongwon@gmail.com

절대진리 상실 시대 넘어 비진리 득세 시대로...무관심이 일상
명확한 메시지, 삶을 통한 감동, 진리로 대항하는 모습 보여야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껍데기와 알맹이

얼마전 퇴근하는 길에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다. 차를 고치기 위해서 두주 정도 맡겨야 했는데 마침 그 기간에 한국에서 언니와 형부가 다니러 오셨다. 보험에서 렌트카가 커버되지만 낯선 차를 타기도 싫고 해서 뉴욕에 있는 막내가 다니러 올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차고에 있던 헌 차를 타기로 했다. 이십 이만 마일을 뛰었지만 프리웨이를 달릴 때 갑자기 설까봐 조금 불안한 것을 제외하고는 잘 달리는 편이다. 기능이 불편한 것보다 외관이 낡은 것이다. 헌 차를 타는 것이 불안했는지 같이 기도모임을 하는 사모님이 자기 집에 렌트해놓고 안 타는 차가 있으니 쓰라고 배려해주셨다. 내 것도 아닌 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이 부담되어서 괜찮다고 사양을 했다.

학교나 교회를 갈 때는 차가 낡은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형부나 언니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모셔다 드릴 때는 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마음이 쓰였다. 형부의 어린 시절 친구 중 한 분은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잘 잡으신 장로님이셨다. 그야말로 똥차로 형부를 여러 번 그 분을 만나는 장소로 모셔다 드리면서 그 장로님이 "처제가 살림이 어려운가보구나. 미국 온지 오래 되었다면서 저렇게 헌 차를 타고 다니네"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물론 그 장로님이 차가 너무 낡았다고 걱정 한 것도 아니다. 물질의 풍부함을 부러워한 적도 없고, 평생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해본 내가 낡은 차를 타는데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는 것을 보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얘, 어느 차를 타느냐가 중요하니, 그 속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현대의 가치관은 성공을 강조하고 성공의 정의는 주로 겉으로 보이는 성취,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이 지닌 것, 즉 외모, 지위, 소유 등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기초한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머리로도 알고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다. 우리도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우대하고 일류대학에 가는 아이들을 무조건 부러워하며 인품보다 외모로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 그리고 나의 소유나 업적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변변치 못하면 스스로 주눅이 들어 버린다.

요즈음에는 과일, 야채의 껍질에 영양가가 많다고 고구마, 포도를 껍질째 먹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껍데기는 속의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껍데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알맹이다. 선물을 받으면 물론 예쁘게 포장한 선물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포장지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겉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사는 크리스천이 되기보다는 심령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신학교 시절 모든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교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차를 깨끗이 닦아 타고 다니시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내 안에 숨겨진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성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lpyun@apu.edu

담임 목사 청빙

웨슬리안 교단에 소속된 "새벗교회"에서는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
1.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
2. 감리교, 성결교 WEMA (세계 복음선교 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3.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안수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2.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 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 사진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테이프 1편.

○ **제출방법**
1. 우편주소: New Friends Wesleyan church
174 Old Sutton Road, Barrington Hills, IL 60010
2. Email: andrew.chweh@gmail.com
3. 서류마감: 2016년 10월 31일 (월) 까지

○ **기타사항**
1. 제출서류를 Email 로 먼저 보내주시고, 우편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재중"으로 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 심사에 통과된 분은 면담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벗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 일동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 Statement of Ownership, Management, and Circulation (All Periodicals Publications Except Requester Publications)

15. Electronic Copy Circulation	Average No. Copies Each Issue During Preceding 12 Months	No.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Nearest to Filing Date
a. Paid Electronic Copies	–	–
b. Total Paid Print Copies (Line 15c) + Paid Electronic Copies (Line 16a)	1810	1819
c. Total Print Distribution (Line 15f) + Paid Electronic Copies (Line 16a)	2850	2850
d. Percent Paid (Both Print & Electronic Copies) (15b divided by 15c × 100)	63.5%	63.8%

☐ I certify that 50% of all my distributed copies (electronic and print) are paid above a nominal price.

17. Publication of Statement of Ownership
☐ If the publication is a general publication, publication of this statement is required. Will be printed in the Sep. 24, 2016 issue of this publication. ☐ Publication not required.

18. Signature and Title of Editor, Publisher, Business Manager, or Owner — Young C. Chang — Date: Sep. 17, 2016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furnish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anyone who furnishe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is form or who omits material or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form may b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including fines and imprisonment) and/or civil sanctions (including civil penalties).

13. Publication Title	14. Issue Date for Circulation Data Below
The Korean Christian Press	Sep. 10, 2016

16. Extent and Nature of Circulation			Average No. Copies Each Issue During Preceding 12 Months	No.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Nearest to Filing Date
a.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3000	3000
b. Paid Circulation (By Mail and Outside the Mail)	(1)	Mailed Outside-County Paid Subscriptions Stated on PS Form 3541 (Include paid distribution above nominal rate, advertiser's proof copies, and exchange copies)	648	649
	(2)	Mailed In-County Paid Subscriptions Stated on PS Form 3541 (Include paid distribution above nominal rate, advertiser's proof copies, and exchange copies)	123	114
	(3)	Paid Distribution Outside the Mails Including Sales Through Dealers and Carriers, Street Vendors, Counter Sales, and Other Paid Distribution Outside USPS®	–	–
	(4)	Paid Distribution by Other Classes of Mail Through the USPS (e.g., First-Class Mail®)	1165	1156
c. Total Paid Distribution (Sum of 15b (1), (2), (3), and (4))			1810	1819
d. Free or Nominal Rate Distribution (By Mail and Outside the Mail)	(1)	Free or Nominal Rate Outside-County Copies included on PS Form 3541	–	–
	(2)	Free or Nominal Rate In-County Copies included on PS Form 3541	–	–
	(3)	Free or Nominal Rate Copies Mailed at Other Classes Through the USPS (e.g., First-Class Mail)	69	69
	(4)	Free or Nominal Rate Distribution Outside the Mail (Carriers or other means)	971	964
e. Total Free or Nominal Rate Distribution (Sum of 15d (1), (2), (3) and (4))			1040	1033
f. Total Distribution (Sum of 15c and 15e)			2850	2850
g. Copies not Distributed (See Instructions to Publishers #4 (page #3))			150	150
h. Total (Sum of 15f and g)			3000	3000
i. Percent Paid (15c divided by 15f times 100)			63.5%	63.8%

PS Form 3526, July 2014 (Page 2 of 4)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목회서신

값없이 사라! 믿기만 하라!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알라스카가 자원의 보고라는 얘길 들으면 들을수록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라스카의 전 주인 후손들입니다. 반면 알라스카를 산 사람의 후손들은 오늘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알라스카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1867년 72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1에이커(1224평)에 2센트를 주고 헐값에 샀습니다.

당시 미국 측에서 이 일을 시워드 국무장관이 진행했는데,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의회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시워드가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라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30년 뒤 알라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20세기 들어서 석유까지 발견되면서 시워드 국무장관이 장래를 보는 혜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 가치를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라스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면 100년 안에 그 진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은 이 세상에 서는 제한된 사람들만 알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알라스카를 산 미국이 그 땅에 매장된 금과 석유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산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헐값에 산 알라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석유가 나올 날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다음 세상을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야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야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인줄 압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값이 비싸 사람들이 도무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겠지만, 죽음 이후 의 다음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다음 세상을 천국에 서 보낼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 믿기만 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jaekunlee00@hotmail.com

기성 남가주교역자회 모임에서 김회창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예수님 대속적 사역정신으로 목회하라"

기성 남가주교역자회 모임...김회창 목사 특강

남가주 지역(LA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 70여 성결교회로 구성된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충기 목사)는 9월 12일 회장 안충기 목사가 시무하는 샌디에고새믿음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안충기 회장의 인도로 남서부지방회장 권다윗 목사가 기도하고 양우광 목사(SV한인연합교회 담임)가 '성결'을 주제로 설교했다.

설교 후 김회창 부회장이 암 투병하는 두 명의 사모를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정진수 목사 축도로 마친 후 트리니티대학교 총장이며 남부개혁신학 LA캠퍼스 학장 김회창 목사가 '복합문화사역을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효과적 이민사역에 도움을 주는 특강을 했다.

김회창 목사는 "이민 사역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장목회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그 문화에 예수님처럼 접근하는 성육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뿌린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정신으로 해당 문화적 배경을 파고들어가는 접근적 이해와 그들 속에 있는 문화의 경향성을 알고 복음을 전달해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료를 제시했다. 또 지역별로 나라별로 구별해 복음이 잘 소통하는 문화인류학적인 의사소통을 PPT로 보여주며 강조했다.

〈기사제공: 기성 남가주교역자회〉

"선교사들 위로와 도전 받는 대회로"

2016 국제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 성황

2016 국제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날 선교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그들이 사역하는 지역의 전통복장을 하고 각 지역별로 입장한 가운데 김종욱 목사(GMI상임총무)가 세계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은혜한인교회 본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뜨거운 찬양으로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 선교영상 소개가 있은 후 한기홍 목사(GMI부총재)가 환영사를, 조경호 러시아 선교사가 기도를, 김광신 목사(GMI총재)가 '우리교단의 선교정책'(마10: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둘째 날 대회는 차훈 필리핀선교사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드렸으며 박기호 교수가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박태수 선교사가 '미전도종족선교의 전략과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에는 총회선교부 조직 및 사역발표 시간을 가졌으며 노회 및 선교지 권역별 모임을 가졌다.

셋째 날 오전은 허창식 남아공선교사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시작, 김정한 선교사가 '강소형 선교교회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가 '선교사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어 노회별 보고시간을 갖고 최갑순 페루 선교사, 김동규 캄보디아선교사, 김성림 씨에라리온 선교사, 전재덕 쿠바선교사의 선교보고 시간을 가졌다.

넷째 날은 박상수 인도선교사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드리고 이서 목사(국제총회 총회장)의 사회로 국제총회 회무처리를 했다. 폐회예배 후 오후에는 선교사 전체모임, 권역별 모임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74개국 520명 선교사들과 외부인사 등 총 688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두 번의 저녁집회와 목사안수식이 있었다.

총재 김광신 목사는 "이번 총회는 세계선교축제와 같은 기회이며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교대회를 통해 은혜한인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서 사명을 다했으면 한다. 또한 험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대회를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2016 국제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APC 록키마운틴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KAPC 제9회 록키마운틴노회 정기노회

제9회 미주예수교장로회(KAPC) 록키마운틴노회(노회장 이동훈 목사) 가을 정기노회가 지난 12일 삼성장로교회(이동훈 목사 시무)에서 개최됐다.

이동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권면했다. 이 날 두 명의 목사가 새로 가입했다.

노회를 마친 다음날 1박2일로 hot sulphur springs에서 목회자수련회를 가졌다. KAPC에 소속된 록키마운틴노회는 5년 전 중부노회에서 분립돼 현재 10교회 12명의 목사회원이 소속돼 있다.

〈기사제공: KAPC록키마운틴노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와 미주한국문인협회가 공동주최한 제11회 창작가곡제가 17일(토) 오후 5시 USC 조이스 카밀레리 홀에서 열렸다.

제 11회 창작 가곡제 개최

남가주한인음악가협, 미주한국문인협 공동주최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 권사)와 미주한국문인협회(회장 장효정)이 공동주최한 제11회 창작가곡제가 17일 오후 5시 USC 조이스 카밀레리 홀에서 열렸다.

가곡제는 최예린, 박찬, 소프라노 신선미, 김희우, 지경,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테너 전승철, 바리톤 류정상과 플륫연주자 시코르스키, 바이올리니스트 차일라, 첼리스트 나인희가 출연했다.

이날 연주된 곡명은 다음과 같다.

△길위에서(강언덕 작시/김희원 작곡) △꽃시(김영교 작시/엘리엇 박 작곡) △첫사랑(장효정 작시/황현정 작곡) △소금사막(전히진 작시/김재숙 작곡) △그네를 타면(김수영 작시/백낙금 작곡) △춘의(문금속 작시/지성심 작곡) △향기(조춘 작시/이호준 작곡) △창가에 기대서서(정용진 작시/국현 작곡) △내안에 그대 있어(정국희 작시/황현정 작곡) △하얀 약속(채연정 작시/황광선 작곡) △안개비(강화시 작시/이호준 작곡) △꽃의 중심(김지희 작시/이혜경 작곡) △민들레 사랑(석정희 작시/이호준 작곡) △나비의 노래(차신대 작시/김재숙 작곡) △문득 생각이 나시거든(김탁제 작시/조성원 작곡).

〈박준호 기자〉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은혜의 40년, 은혜의 새물결'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40주년 감사축제' 다양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가 오는 11월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동 교회는 지난 30일 애틀랜타 둘루스 서라벌 식당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1월 6일 개최하는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축제' 행사 내용을 설명했다.

서삼정 목사는 "지난 40년 동안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왔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해온 성도들과 이 교회에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 그리고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축제는 '은혜의 40년, 은혜의 새물결'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를 초청해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40주년 기념 전시회와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서삼정 목사 시화전과 애틀랜타 화가협회의 초대작가 그림전시회가 오는 10월 22일과 23일, 29일과 30일 등 2주간에 걸쳐 열린다.

또 교회의 40주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역사사진 전시회도 40주년 기념행사 당일인 11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0월 29일에는 스토마운틴 골프코스에서 제1회 애틀랜타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아이티에 있는 고아들을 위한 숙소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다.

교회 관계자는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아이티 지역 숙소를 시작으로 학교건립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매년 같은 대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아이티 지역을 선교하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목사는 "매 10년마다 설립행사를 해왔는데, 개척 이후 40년 행사를 갖기는 처음"이라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설립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교우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장신대 84회 미주장신에 1천2백만원 전달

장신대학교 84기 동기회 회장 조재호 목사가 같은 84기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에게 후원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좌로부터 동기회 부회장 김휘현 목사(동일교회), 미주장신대 교무처장 구경모 목사, 회장 조재호 목사(고척교회), 부회장 민경운 목사(성덕교회), 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목사, 서기 김강식 목사(산돌교회)이다.

지난 7월 11일 서울 정동의 달개비 식당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84기 동기회 임원들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후원금 1천2백만원을 전달하는 식을 가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 84기는 홈커밍데이를 맞아 행사 준비와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4년여 동안 임원들이 여러 차례 지방의 동문교회를 순회하며 헌신한 결과, 2억7천여만원이 모금됐다. 84기 동기회는 모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에 1억원을, 예장통합 산하 5개 지방 신학교에 각각 1천만원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1천2백만원을 후원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2016 LA 한국가곡의 밤 열려

2016 LA 한국가곡의 밤 음악회가 보나기획(대표 이혜자) 주최로 18일 오후 6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김미희 아나운서(라디오서울)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고 권길상 선생님을 그리며 △신작가곡의 향연 △합창으로 듣는 가곡 △아리랑을 찾아서 △흘러간 가곡에 젖어 △중창으로 듣는 가곡 등의 스테이지로 진행됐다.

코행가 초등학교 합창단, 에브라임유, 서지나, 소프라노 김민지, 임청화, 여선주, 메조소프라노 미쉘 해밍스, 테너 오위영, 토드 스트레인지, 바리톤 채홍석, 스티브 팬스가 출연해 초가을 저녁하늘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다.

2016 LA한국가곡의 밤 음악회를 마치고 독창자들과 반주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가곡의 밤은 그리운 금강산을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퀸즈장로교회 건축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연례 가을 건축바자회가 10월 1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동 교회 지하친교실과 파킹랏에서 열린다. 예년과 같이 의류, 생활용품, 과일 등과 김밥, 비빔밥, 돈까스, 김치, 떡, 튀김 등 음식과 음료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된다. 음식은 배달이 가능하다.

▲문의: (718)886-4040

담임목사 청빙

웨슬리안 교단 소속 새벗교회(New Friends Wesleyan Church, 174 Old Sutton Rd. Barrington Hills, IL 60019)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영주권/시민권자로 감리교, 성결교, WEMA에서 안수 받은 정규 신학대학 졸업자.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력서(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최종학위 증명서, 목회비전 계획서, 자기소개서, 최근 6개월내 설교 테입 1편 등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10월 31일까지.

▲이메일: andrew.chweh@gmail.com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동산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장로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시민권)자로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며 이민목회와 2세교육에 비전이 있으며 한영설교 가능. 서류는 신학교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본인 및 가족(사모)소개서, 목회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2회분, 기타 보조자료. 접수마감은 9월 30일.

▲문의: dongsanchurch@yahoo.com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가 유학생이나 온라인, 교환교수/연구원, 인턴십 학생을 모집한다. 학위과정 프로그램은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교육 △석사: 상담학, 교육학, 음악, 영어교육, 신학, 경영학 △박사: 목회학(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선교학, 목회신학), 음악, 리더십이 있으며 ESL 과정도 있다. 학위취득방법은 온 캠퍼스(I-20발행), 온라인, 소집강의와 온라인 병행이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하다. 또 J-1비자가 가능하며 미국 비행기조종사 과정(국제 항공 아카데미)도 오픈돼 있다. 본교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분교는 워싱턴DC와 한국 서울에 캠퍼스가 있다. 이메일 usa@midwest.edu

▲문의: (636)327-4645

전도와 새 가족사역 컨퍼런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주최하는 '전도와 새가족사역 컨퍼런스'가 10월 10일(월과 1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기준 목사(대구 목자교회 담임)과 이혜란 사모. 회비는 일인당 40달러(3명 100달러)다.

▲문의: (718)840-8931

퀸즈 YWCA 무료 방과후학교 리본 커팅식

퀸즈 YWCA가 9월 22일(목)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지역정치인들과 함께 무료 방과후학교 리본 커팅식을 갖는다. 퀸즈 YWCA는 지난 19일부터 무료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으며 50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13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문의: (718)353-4553 ext. 27

제 34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

제 34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가 10월 2일(주) 오후 6시 플러싱 JHS189강당에서 열린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대표 서병선)와 두리하나USA(뉴욕대표 김영란)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의 출연진은 소프라노 박진원, 연예술, 이희정 반나영, 테너 김성욱, 서병선, 바리톤 백승현, 피아노 임에스더. 특별출연으로 뉴욕그레이스여성합창단, 최동현 클라리넷 독주가 공연된다. 티켓은 15달러.

▲문의: (718)551-7186 (212)567-6919

뉴욕일원 노회, 지방회 정기회

KAPC, 뉴욕서노회, 가든노회 정기노회

뉴욕서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이춘호 목사)는 목사 회원 23명과 장로 총대 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79회 정기노회를 여호수아장로교회(담임 이만수 목사)에서 열었다. 예배는 노회장 이춘호 목사 인도로, 기도 임일송 목사(백민교회), 설교 임동열 목사(엘림교회), 헌금기도 우시창 목사(보스턴은혜장로교회), 축도 이만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무시간에는 든든한교회 임시당회장 이승원 목사의 교회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7인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공개청빙 없이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서노회와 뉴욕동노회는 10월 중 연합 친교 및 체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다음 주간에 만나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했으며, 여호수아장로교회 부목사 채경수 목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상회비를 내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목사회원(전도목사, 기관목사, 무임목사)들이 소속감과 아울러 권리를 주장하게 하기위해 연회비 100불씩 내기로 했다.

이번 노회에서는 박민우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박민우 목사는 고든코넬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스턴은혜장로교회(담임 우시창 목사)에서 교육담당 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안수식은 노회장 이춘호 목사 사회로, 기도 우시창 목사, 설교 이춘호 목사, 권면 양조경 목사, 축사 오영상 목사, 축도 박민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든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조성훈 목사)는 제79회 정기노회가 13일 오전 뉴욕시온산장로교회(담임 김재호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조성훈 목사 인도로, 기도 박해창 목사, 성경봉독 김지희 목사, 설교 조성훈 목사, 성찬예식 부노회장 박형기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서기 김재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조성훈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에서 뉴저지성도교회 2인(이인재, 진용운) 장로고시 청원, 뉴욕시온산장로교회(김재호 목사) 교회이전 청원 등을 허락했다. 또 각 시찰별 야유회를 가져 친목을 다지기로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서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용 했다.

가든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용 했다.

가뉴욕한인지방회 정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용 했다.

SBC 뉴욕한인지방회 제33회 정기회

미남침례회(SBC) 뉴욕한인지방회(회장 신석환 목사) 제33회 정기회가 9월 13일 오전 10시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려 주요 임원들이 유임됐다.

임원선출 시간에 현 임원의 '유임'과 '선출'의 의견이 오갔으나 결국 △회장 신석환 목사 △부회장 박진하 목사 △총무 김재용 목사 등이 유임됐다. 나머지 △서기 박춘수 목사 △회계 이희선 목사 등을 선출했다.

신석환 목사(부활의새빛교회 담임)는 1992년, 2000년에 이어 2015년과 2016년 회기를 연임해 4회 회장 기록을 세웠다.

유임된 회장 신석환 목사는 "안정과 도전"을 새 회기의 목표로 정하고 "교단 분위기를 한층 고양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더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세대교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신석환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각부 사업보고로 사모위로회, 성탄송년 연합예배, 찰랜지 청소년수양회, 목회자가족수양회 등의 사업을 보고했다.

재정보고는 수입 52,195달러, 지출 40,258달러로 100% 회비 완납을 보고했으며, 김영환 목사가 감사보고 했다.

또한 김동환 목사(가칭 조이플침례교회 개척)를 소개했으며 박춘수 목사의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 명칭 변경 및 은퇴식을 광고했다. 또 전병창 목사의 부인, 전난서 사모가 한국침례교의 흔적을 다룬 "마르다의 여정" 저서를 출간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설교 백창건 목사, 광고 총무 김재용 목사, 축도 허걸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뉴욕지방회에는 지난해보다 2개 교회가 줄어 현재 18개 교회가 속해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에서 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다.

한미 8백명 한 자리서 찬양

CBSN 주최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뉴욕기독교방송 CBSN(사장 문석진 목사)가 주최하는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가 9월 18일 뉴욕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엄에서 2500석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노숙인과 장애인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4개의 합창단, 시카고에서 1개, 뉴욕에서 7개의 팀이 모였으며, 뉴욕,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 등 7개의 교계 단체와 12개 언론사가 후원했다.

공동대회장은 김남수 목사, 김영식 목사, 이종명 목사, 이의철 목사가 맡았으며,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 행사위원장 유성종 장로, 사무총장 문석진 목사 등을 필두로 뉴욕 전역의 교역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무대에 선 성가단 중 한국에서는 인천장로성가단(단장 최동수), 서울장로성가단(단장 김광영), 코랄카리스 장로합창단(단장 박창복), 익산장로합창단(단장 박재민) 등이 공연했다.

이번 찬양제를 위해 뉴욕에서 특별히 조직된 합창단은 두 팀으로 교회연합합창단(단장 노성보 목사)과 미주웨슬리연합합창단(단장 김영식 목사)이며, 이 밖에 시카고장로성가단(단장 홍두영),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이보춘),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최윤자),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프라미스교회 어린이 합창단 및 연합성가대(단장 김남수) 등 총 12개 팀이 25곡을 선보였다.

공동대회장 김남수 목사의 대회사, 사무총장 문석진 목사의 환영사,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 행사위원장 유성종 장로 등이 소감을 밝혔다.

이어 뉴욕교협 이종명 목사, 뉴욕목사회 김영환 목사,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김기환 뉴욕총영사, 피터 구 뉴욕시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정계 인사들은 행사에 주목하며 축사를 보내왔다.

찬양제는 AM1660의 박영진, 김지선 앵커의 사회와 양민석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해 인천장로성가단의 '십자가 군병', 'I Love You, Lord', '축복', 익산장로성가단의 '가라 모세',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따르라', 서울장로성가단의 '복 있는 사람들', '주님의 택함이었소', 시카고장로성가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깊은 강', '주기도문',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의 '주기도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이 연주됐다.

계속해서 뉴욕장로성가단은 '신자여 용진하라', '찬송 메들리'를, 미주웨슬리연합합창단은 '모세의 노래', '오직 예수', 코랄카리스 장로합창단은 '그 사랑 내 생명', '주님과 함께', '감사'를, 교회연합합창단은 '주는 나의 요새', 프라미스어린이합창단은 'Babayetu'를, 프라미스 연합성가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를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으며, 피날레로는 김성균 장로의 지휘로 참가자 전원이 '할렐루야'를 합창했고,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CBSN〉

뉴욕목우회 9월 월례예배에서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샬렘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다.

회보 발행...장기적 활성화 방안 발표

뉴욕목우회 9월 월례예배, 설교 박시훈 목사

뉴욕목우회(회장 김전 목사) 9월 월례회가 지난 16일 뉴욕대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배성희 사모(뉴욕대한교회)는 목우회의 장기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10월 중으로 회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참과 기도를 당부했다. 추가설명에서 김진화 목사는 2016년 상반기 동안 발표해온 사례보고와 각자의 사역 소개 등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고 밝히고 원고는 대한교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또 광고를 통해 유상열 목사는 목우회 사역을 기획 중에 있다며, 문화사역으로 색소폰 교실을 오픈한다고 소개했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유승례 목사, 특송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샬렘찬양단, 말씀 박시훈 목사(뉴욕함께하는교회 담임), 축도 김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시훈 목사는 "특별한 초대"(마 11:28-3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은 평소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된 말씀이었다"며 "수고했는데도 남겨진 짐은 마음의 짐이란 것을 알았다. 우리의 육체의 짐, 마음의 짐 모두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첫째,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함께 지면 짐이 가벼워진다. 즉 예수님의 동행과 연합의 축복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목회자는 말씀준비에 생명을 걸고 그 안에서 쉼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 마음의 가장 무거운 죄짐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2부 교회개척 및 미자립교회 사례보고는 조태호 목사(섬기는교회)가 2008년 3월 가정에서 드린 첫 예배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섬기는교회의 상황을 소개하며 특별한 사례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꿈(비전)은 천국 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것이 은혜"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생명지키기, 우리가 함께 해요!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특별공개세미나

2016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12차 특별공개세미나가 미동부생명의전화 주최로 9월 10일 오후 7시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공동대표 김영호 목사(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세계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 전 세계에 1)생명의 소중함 2)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3)예방대책마련과 계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만들고 4)유가족과 자살자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하는 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촉진케 하고 5)그들을 돕고 있는 학자 전문의 상담사 봉사자와 단체에 힘을 모아주기위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의미 있는 날인만큼 한인동포, 단체와 기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살려내는데 뜻과 힘과 사랑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석주 뉴욕한인회역대회장단 회장, 손영호 동포담당영사, 김정국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오후 8시에는 자살율 감소에 도움을 주는 파란색 촛불을 점화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각자의 다짐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곽상희 시인이 '상한 가슴의 기도' 제목의 시를 낭송했다.

이어서 자살을 비롯한 생명경시 풍조를 지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5년 한국에서 종교계, 의료계, 복지계, 교육계 80여명이 함께 만든 '생명지키기 7대 선언'을 참석자 전원이 합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월드밀알선교중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제 2부 특별 공개세미나는 뉴욕시립대학 행동신경과학 교수 이문희 박사가 "우울증과 분노로 어렵게 지나는 분들 어떻게 도와야하나?", Divine힐링센터 원장 권대준 박사가 "왕따 고통과 자살예방", 나약대 상담대학원교수 이수일 박사가 "극복 사례로 본 소통과 중독문제"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문의: (718)213-8645

〈기사제공: 미동부생명의전화〉

HYM청년연합집회... '표적과 기사' 주제

10월 8, 9일 세리토스선교교회, 강사 김선교 선교사

HYM(대표 더글러스김 선교사)가 주최하는 제35회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10월 8일(토)과 9일(주) 양일간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5일 정오 한인타운에 위치한 신북경 식당에서 열렸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이번집회는 '표적과 기사(Miraculous Signs and Wonders)'라는 주제로 열리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Example of Christ'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가 돼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집회강사는 2005-2013년 순회선교단 사역자이자 '믿음은 분투다'의 저자인 김선교 선교사(다윗의열쇠 대표). 이번집회는 34회 때까지 했던 포맷을 벗어나 오직 찬양과 말씀,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 최천국 전도사와 HYM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선교 선교사의 말씀, 그리고 설수진 전도사가 기도인도를 하며 더글러스김 대표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하게 된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이번집회를 통해 쓰러져가는 미국에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로 결단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제35회 HYM청년연합집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더글러스 김 대표가 설명하고 있다

나눔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가 충현선교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감사예배에서 찬양하는 오페라 소년소녀 합창단 모습

하나님과 후원자들 손길에 감사

나눔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 창립 20주년 감사예배가 17일(오후 7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한영호 목사는 "나눔선교회를 섬긴지가 20년이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하며 "선교회를 돕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눔을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형건 선교사와 셜리왕 자매의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나눔밴드의 찬양, 사이몬임이 자신의 삶을 노래로 만든 '두 번째의 삶'을 불렀으며 나눔선교회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김유정 집사 편지가 소개됐으며 허시관 전도사가 간증했다.

그리고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단장 노성혜)의 찬양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기도를,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축하메시지를, 민종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루퍼스 최 형제가 피아노 연주를 했으며 한영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전 나성영락교회 담임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설립준비모임 가져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로부터 '면직'을 당한 전 나성영락교회 담임 김경진 목사가 나성영락교회 일부 교인들과 함께 '기쁜우리교회'(Joyful Chrisitain Community Church, JCCC) 설립을 시작했다.

김경진 목사는 17일 오후 7시 새로운 예배장소인 셰퍼드대학교(3200 N. San Fernando Rd.)에서 약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면직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 목사는 '꿈꾸는 자의 행로'(창37:9-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강단에 서지 않은지가 2개월여 되는데, 한 2년 된 것 같다. 뵙고 싶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라며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았다. 강단을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주일저녁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하지만 저의 의도와 달리 갑자기 시작됐으며 기쁜우리교회라는 교회이름도 이틀 만에 정했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갑자기 시작해서 많이 미흡하다. 오늘 모임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이 혼잡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창립준비기도회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가 하나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비전과 꿈, 사명을 분명히 이뤄주실 것"이라는 부탁도 전했다.

김경진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회복운동 관계자가 중심이 돼 설립되는 '기쁜우리교회'는 오는 25일 첫 예배를 드린다. 장소는 셰퍼드대학교로 1부(9시)와 2부(1시30분) 두 번 예배를 가질 계획이며, 오는 11월 설립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준비기도회에서 김경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33주년 감사 및 제5대 김낙인 담임목사 환영예배에서 김낙인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창립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33주년 감사 및

제5대 김낙인 담임목사 환영예배 성황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33주년 감사 및 제5대 김낙인 담임목사 환영예배가 일 성황리에 열렸다.

김용승 장로 집례로 열린 감사예배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 윤용찬 장로 대표기도, 축하케익 절단, 한성원 권사 성경봉독, 성가대 찬양 후 젠 윌리 감리사(UMC 동지방회)가 'God's Servants, Working Together'(고전3:5-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민유기 형제와 성가대가 특별찬양했으며 잰 윌리 감리사가 김낙인 목사 위임식을 인도했다.

노시성 장로(목회위원장)가 회중의 헌신을, KUMC 목회자부부합창단이 봉헌특별찬양, 그리고 김낙인 목사가 봉헌 기도했다. 그리고 림학춘 목사(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펀 챈리 목사가 축사했으며 남가주주님의교회 4중창팀이 축복의 찬양을 했다.

이날 예배는 정용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 김 의원과 한인 단체장들 한인 커뮤니티에 유권자 등록과 11월 선거참여 당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영김 의원 등 11월 선거참여 당부

유권자 등록 1달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영 김 가주하원의원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한인커뮤니티에 유권자 등록과 11월 선거참여를 위한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한남체인에서 열렸다. 이날 영김 의원과 한인 단체장들은 당일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할 것을 호소했다.

가주 첫 공화당 한인여성 주 하원의원이며 또한 65지구의 첫 아시안 주 하원의원인 영김 의원은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먼저 모든 한인 시민권자들이 꼭 유권자 등록을 해주시고, 둘째는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셔서 미리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인회 김종대 회장은 "2년 전 우리는 영김 의원을 우리의 대표로 선출했다. 당선된 후 지금까지 한인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다. 이제는 우리가 영김 의원을 위해 나서야 될때가 됐다"며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과 11월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다른 한인단체장(민주평통 권석대 회장, 한미노인회 회장 이태구 부회장, 평신도협의회 윤우경 회장, 김가등 전 힌인회 회장, 유수연 ABC 교육위원) 모두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호소했고 영김 의원 선거스태프들이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

유권자 등록을 원하면 웹사이트(http://registertovote.ca.gov/ko/)를 방문하거나 영김 의원 선거사무실(714-752-3391)로 연락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선교적 교회 위한 학술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10월 4일(화)과 6일(목)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지역사회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를 초정해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본교 6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NGO와 선교" 이며, 강사는 임진기 사무총장(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 사무국장/현 WHH 재단설립추진단 사무총장)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www.wmu.edu

▲문의:

제3회 찬양선교음악회

주사랑선교교회(담임 이재근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가 10월 2일(주) 오후 6시 생명샘교회(19718 Grayland Ave, Artesia)에서 개최된다. 출연진은 바리톤 장상근, 소노로스싱어즈, LA남성선교합창단, 갓스이미지, KAM코랄, 박트리오.

▲문의: (562)714-0691

OC목성연 말씀세미나

오렌지카운티 목회자성경연구원(OC목성연) 말씀 세미나가 9월 26일(월)과 27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UBM교회(담임 앤드류김 목사, 1531 S Sinclair St, Anaheim)에서 열린다. 골로새서를 주제로 문희원 목사(미주목성연 대표)가 강의한다. 회비는 일인당 30달러이며, 이틀간의 점심과 교재 2권이 포함된다.

▲문의: 714-519-9327(김진년목사)

미국북장로회 한국선교 130주년기념 정신경신 찬양제

미국북장로회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정신 경신 찬양제가 남가주정신동문회와 남가주경신동문회 공동주관으로 30일(금) 오후 8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찬양제는 정신동문 코러스(지휘 백낙금)와 경신코랄(지휘 장진영)이 출연한다.

▲문의: (626)319-9169, (213)500-1117

한마음선교교회 설립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조이풀교회 후원 한마음선교교회 설립감사예배

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캘리포니아 노회소속 한마음선교교회(담임 김경식 목사) 설립 감사예배가 일 드려졌다. 동 교회는 김경식 목사가 부목사로 6년을 섬긴 조이풀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후원으로 개척됐다.

예배는 김경식 목사 인도로 리버사이드 주님의기쁨교회 카리스 찬양단의 찬송인도, 조한나 권사(조이풀교회)가 대표기도, 김정호 목사가 '세 가지 권면'(딤후2:3-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정호 목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은 한마음선교교회의 설립예배의 증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컴미션 대표 이재환 선교사의 격려사, 굳타임스교회 조성 목사의 축사 후 조이풀교회 Youth Groud Orchestra의 특별연주와 김철이 목사의 축가에 이어 캘리포니아 노회장 이시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김경식 목사는 더욱 겸손한 신실한 종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주일예배시간은 오후 1시30분, 장소는 3000W 6th st, B02. LA, CA 90020.

▲문의: (213)909-3579

〈기사제공: 한마음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의 시무가 2017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1.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WEMA(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3. 브라질 선교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4.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 경력, 일반 경력)
2.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목회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포함-가족사진 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포어 설교 가능하신 분은 1편은 포어 설교 제출)
6. 연령 (40~60세)
7.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8. 건강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R. Mamoré 71 - Bom Retiro, SP - Brasil CEP : 01128-020
2. E-mail : andrejhong@hotmail.com(Cel 55-11-99126-8574) 청빙위원회 서기 홍정표
3. 서류마감 : 2016년 9월 30일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첨부파일 : 서류 - PDF파일 형태, 설교 동영상 - 동영상 파일 혹은 MP3), 우편(마감일 도착 안에 한함)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확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 재중'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종교개혁 현지서 한국교회 길을 묻다

독일서 '비텐베르크 포럼'·체코서 '유럽성시화대회' 개최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독일과 체코에서 잇따라 열렸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와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배진기 목사)는 지난 13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포럼'을 개최했다.

내년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아 13일 독일 비텐베르크대학에서 '비텐베르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루터 연구의 권위자인 마르틴 트로이 박사와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등 한국의 목회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트로이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루터는 신앙의 핵심으로 하나님 사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며 "이는 루터교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루터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 목회자들은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가 최근 선언한 '한국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8개 항 선언문'을 토대로 각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8개 항은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개교회, 교단,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해야 한다' 등이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개교회 중심이 됐다. 이로 인해 시대적 이슈나 반기독교적 공격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반기독교적인 정서나 사상과 싸우려면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연결과 연합으로 교회를 세우는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준희 여의도순복음교회 양서성전 목사는 "한국교회는 분열과 불일치의 개교회주의 현상과 교권주의로 인한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며 "한국교회는 대오 각성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창 수원순복음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인격자를 뽑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실현을 위한 교회의 사회 참여, 배진기 포항안디옥교회 목사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견인하는 한국교회의 역할, 안준배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은 한국교회 상층부부터 회개할 것 등을 강조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와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다음 달 28일 서울 여의도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서울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가 주최하고 유럽성시화운동본부(상임회장 김현배 목사)가 주관한 '2016유럽성시화대회'도 지난 13-16일 체코 프라하한인교회(박상욱 목사)에서 개최됐다. 15개국에서 온 70여명의 참석자들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며 유럽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고 다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와 이영환 대전 한밭제일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성시화운동의 전도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평우(이탈리아 로마한인교회) 안창국(독일 드레스덴한인교회) 송기호(영국 런던 목양교회) 목사 등 성시화운동 대표들이 사역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 저녁집회는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종교개혁탐방단 목회자 4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프라하 성시화대회'로 드렸다.

'2017유럽성시화대회'는 내년 9월 독일에서 열린다. 유럽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김현배 목사는 "내년에는 한인 목회자들이 파송된 나라와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나누는 대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기총-한교연 통합 찬성 결의 추진

기침 제106차 정기총회 개막...총회장 유관대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제106차 정기총회를 개막했다. 기침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찬성 결의를 추진한다. 총회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 선언을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총회장은 입구부터 인파로 북적거렸다. 임원 선거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한 표를 부탁했다. 특히 이번에는 5년마다 선출하는 총무 선거가 있어 총회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1800여명 중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042명(오후 4시 기준)이 참석했다. 기침 임원 선거는 총회 둘째날 진행되기 때문에 첫날에는 보통 300명 정도만 참석해왔다.

개회예배는 제1부총회장 박종철(전주 새소망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곽도희(남원주침례교회) 전 총회장은 설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섬기는 자세로 임한다면 성(聖) 총회가 될 것"이라며 "성 총회를 위해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회무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유영식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1년간 총회장을 지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채영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반기열 미국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총회는 개회선언 후 18명의 대의원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2시간 만에 휴회,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18명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유 총회장은 총회규약을 들어 대의원권 정지 기준을 설명하려 했으나 1차 회무시간이 종료돼 정회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들 중에는 총무 재임에 도전한 조원희 목사도 있었다. 조 목사는 총무 재임 때 총회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후보자 자격 인정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출마했다. 조 목사는 "교단 정치에 희생됐다"며 반발했다. 총무 후보로는 조 목사를 비롯해 안병창(전 기침 교회진흥원장) 이경희(충남 세도교회) 목사가 출마했다.

제1부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이 거부된 조정식 목사도 20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은 윤덕남(서울 성일교회 협동) 유관재(일산 성광교회) 박종철(전주 새소망교회) 목사가 후보로 나선 가운데 유관재(일산 성광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유 목사는 20일 총회장 선거 2차 투표에서 865표를 얻어 총회장에 당선됐다.

예장통합 '4개 이단해제' 8일 만에 취소키로

임원회, 교단원로목회자 의견수용…조만간 입장문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임원들은 20일 교단 원로들과 모임을 갖고 이단 해제 특별사면을 취소키로 뜻을 모았다. 예장통합 임원회가 지난 12일 선포한 4개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예장통합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기동(서울성락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씨 등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 규정은 유효하게 됐다.

예장통합 임원진은 이날 서울 중구 동호로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전직 총회장 출신의 원로목회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단해제' 특별사면 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총회장 출신 중 가장 큰 어른 격인 림인식(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를 비롯해 남정규 김창인 박종순 유의웅 이광선 지용수 박위근 손달익 정영택 목사 등 19명의 원로급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전직 총회장들은 이번 사면선포에 대해 "특별사면의 취지와 현 총회장의 의욕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교단들이 이단 해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 홀로' 사면을 통해 이단을 풀어줄 경우, 향후 교단 및 교회연합기구들과의 연합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림인식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역대 총회장들은 총회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총대들이 염려할 만한 일들은 하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총회 개회 전에 (특별사면 건에 대한) 잡음이 일절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채 총회장과 임원회가 알아서 잘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예장통합 임원진은 21일 임원회를 열어 교단 원로들의 이 같은 조언을 수용, 특별사면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총회에서는 특별사면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제101회기 총대들의 결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신대 고신대 백석대 서울신대 등 전국 18개 신학대 79명의 교수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통합 임원회의 4개 이단에 대한 사면 공표는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사면 취소를 촉구했다. 장로회신학대 등 예장통합 산하 7개 신학대 교수 114명도 "교단의 교리적 정체성을 지키고 교단 간 화합·일치를 위해 특별사면 결의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안수 대신 직분 신설 검토

예장고신 제66회 총회 개막...신대원 마친 여성 '권도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동남구 충절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6회 총회를 개회하고 교회 개혁과 갱신을 다짐했다.

부총회장 배굉호(부산 남천교회) 목사는 총회 표제인 '응답하자! 교회개혁(열하 18:1~8)'이라는 제목의 개회예배 설교에서 "히스기야처럼 세속주의 배금주의 인본주의라는 우리 안의 우상을 파괴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선거에서는 배 목사가 472표(득표율 96.5%)를 얻어 총회장에 선출됐다. 김상석(부산 대양교회) 목사와 이계열(서울 성산교회) 장로는 각각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과정에서 서류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학교법인 이사 후보의 자격 논란이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 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총대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선거가 진행됐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신학위원회(위원장 장희종 목사)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을 '권도사'(勸道師·Exhorter)로 부르고, 그 자격과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 신설을 청원했다. 이는 신학위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를 참고해 낸 의견이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 교회에 '권도사'라는 직분이 추가된다. 고신은 지난해 총회에서 여성안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경목선교위원회(위원장 제인출 목사)는 군종목사에게 조기 안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헌의안을 발의했다.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SFC)가 수련회에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강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4개 노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노회 지역을 편성하는 안도 검토한다.

동성애 저지 위원회 구성 논의

예장합신 제101회 총회 개막...부총회장에 박삼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안만길 목사) 제101회 총회가 2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막을 올렸다. 총회는 226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교단의 비전과 지향점을 모색한다.

개회예배에서 안만길 총회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빌 2:1~8)'을 주제로 설교하며 "교회는 다시 한 번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며 "목회를 비롯한 모든 사역에서 섬기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대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회의'를 다짐했다. 성찬예식에서는 배병(配餠)위원과 배잔(配盞)위원들이 나와 순서에 따라 떡과 잔을 운반했다. 총대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성찬 의미를 되새겼고 용서와 화해, 섬김을 결단했다.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최칠용(서울 시은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최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학과 신앙, 교회 정치와 좋은 전통을 지키고 싶다"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박삼열(인천 송월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예장합신은 전통적으로 정치색 배제, 건설적 총회를 추구해왔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란 기치를 총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신학적 건전성에 대한 요구도 강해, 헌의안에는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신학 조명 요청,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신앙에 대한 조사 등이 상정됐다. 이 밖에 여성안수에 대한 교단의 분명한 입장과 동성애와 동성결혼법 저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임원 권한 강화 등을 논의한다. 총회에 보고된 예장합신의 교세는 교회 924개, 목사 2481명, 성도 15만여명이다.

시한부종말론 신천지, 버스 광고까지 진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버스 광고까지 진출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3일 취재결과 신천지는 경기도 광명 화영운수 소속 17번 버스에 '신천지가 궁금하세요? 교리비교를 검색해 보세요'라는 광고를 부착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천지는 14만4000명만 채우면 육체영생(肉體永生) 신인합일(神人合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85)씨를 구원자, 보혜사로 떠받들면서 영생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P 버스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는 "신천지 광고가 타 종교나 사회를 비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지난 11일부터 부착했다"면서 "만약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 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그런 것도 없다.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어 "신천지쪽에서 부산지역 버스에도 광고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신천지의 해악은) 종교인들끼리 관심사이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광명시도 법적으로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광고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첨단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신천지 광고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량한 미풍양속 등에 벗어난 것도 아니다"라면서 "신천지의 교리 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이에 대해 "신천지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며 이혼 가출 학업포기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광고를 절대 부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나서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추수꾼 등 10만여명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 2주년 기념 평화 축제'에 총집결했다.

"위기 때 도움 받을 가정·상담사역 가장 필요"

하이패밀리, 한국교회 603곳 대상 가정사역 실태조사

#1 남편과 갈등을 겪던 30대 초반의 이모씨는 구역 모임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성도들로부터 조언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런데 부부문제를 털어놓은 뒤 혼란에 빠졌다. 구역장이 "아기가 없을 때 헤어지는 게 좋겠다"며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 것이다. 알고 보니 구역장 역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씨는 결국 가정사역기관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했다.

#2 50대의 김모 권사는 남편과의 불화로 우울증을 겪었다. 교회에선 소문이 날까봐 이 같은 고민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김 권사 역시 기독교 전문 상담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사례처럼 가정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에 마땅한 가정사역기관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에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는 최근 '한국교회 가정사역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는 가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가정사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패밀리는 지난 6월 전국 603개 교회의 교역자 603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서의 가정사역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가정·상담사역'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목양사역(22%) 국내·해외선교(9%) 기타(8%) 복지·구제사역(6%) 호스피스사역(2%)이 뒤를 이었다.

가정사역이 필요한 이유로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41%)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갈수록 늘기 때문'(39%) '설교나 성경공부만으로는 가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사역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가정사역자를 초청해 여는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들은 교회의 가정사역 형태로 '가정의 달 일회성 캠페인이나 행사'(25%) '전문 가정사역자 초청 발달단계별 연속적 워크숍'(20%) '가정사역자 초청 일회성 특강'(13%) '전 교인 대상 가정사역자 초청 부흥집회'(10%)를 예로 들었다.

교회에서 가정사역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 내 가정사역 전문가 부재'(34%)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17%) '전도, 심방, 설교 등 감당할 사역이 너무 많아서'(16%) 등으로 나타났다.

김향숙 공동대표는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기 위해선 '조직(가정사역위원회)' '콘텐츠' '강사' 등의 3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요소 중 아무 것도 구비돼 있지 않을 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위탁형', 조직만 있을 경우 콘텐츠와 강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협력형', 3요소가 모두 있으면 자체 시행이 가능한 '자립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위탁형이라도 장기 플랜을 갖고 3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정사역자를 키울 수 있다"며 "교회에서 가정사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사람을 키우면 가정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회에서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모를 가정사역자로 세우는 것도 대안"이라며 "사모들이 전문적 공부를 통해 가정사역자로 세워지면 그들이 회복될 뿐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교계도 예외 아니다

법률 시행 D-8…기독교계 적용 대상·대비 어떻게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교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종교인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독교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미션스쿨, 주요 교단들이 운영하는 신학대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기독교 방송사, 일·주·월간지 형태로 발간되는 기독교 신문, 잡지, 인터넷 교계신문 등도 마찬가지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등에 따르면 교회나 교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상임·비상임을 포함하는 이사·감사 등 임원, 직원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많은 신학대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상당수를 목회자나 장로들이 맡고 있다. 교회 등에서 설립한 유치원 원장도 목회자가 겸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송·신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사인 CBS와 CTS, 극동방송 등의 이사진도 목사·장로들이 다수다. 주요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과 기독공보, 기독교타임즈, 한국성결신문 등과 인터넷 교계 신문 역시 목사·장로들이 대표와 임직원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했다던가, 돈을 주기로 약속만 했어도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교도소 선교칼럼 (5)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고통에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아담스 카운티에 구금되어 있는 한 남성 제소자를 상담하고 있으며 그는 사탄 숭배에 깊게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여 그 피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반복한 나머지 그의 한 다리가 균에 감염되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의료진들이 그가 다시 자해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수감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주 전에는 감염으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의료진들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그 후 믿음이 있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 읽기를 권하였고 그도 받아들이길 원해서 제가 성경과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가지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며 무너져 울부짖었을 때 저는 한줄기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왜 사탄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악마가 그에게 피를 제물로 바치라 명했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7일 안에 어머니와 그의 딸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답니다. 두려웠던 그는 몇 년 간이나 자신의 피를 바쳐왔습니다. 근래에 그는 많은 악령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에 의하면 100명이 넘는 악마들이 그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등에 난 큰 상처는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고, 놀라운 점은 그는 항상 독방에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얘기로 악마들이 그를 때리고 할퀴었고 강한 주먹질을 당해 갈비뼈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셔츠와 침구류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침구류를 갈아준 의료진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악마들은 그가 교도소 채플린(목사)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며 그 일로 그를 벌했다고 했습니다. 이날이 악령들에게 그가 처음 공격당한 날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머니와 딸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하는 기도를 바로 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제가 그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일상적으로 수요일마다 하던 사탄 예배를 그 전날 수요일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한발은 천국에 또 한발은 지옥에 걸쳐서는 악마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와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영적 세계에 대해 너무 깊이 빠져있었고 악의 영들과 오랫동안 대화해왔기 때문에 악마의 공격은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아직도 그를 붙잡고 있고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예배하니 않아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돌아설 경우 어머니와 딸을 7일 안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제 그의 가족이 받게 될 처벌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한 마귀가 그를 공포로 몰아놓고 있으니 이 순간 여러분께 그와 그의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악마는 우리에게 그 세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는 많은 악마와 소통함으로 갖게 된 다른 영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 또한 악의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은 괴롭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회개" 라는 책의 일부로 변화 프로젝트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의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았어도 그는 간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마를 두려워하고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치료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를 방문하여 그가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읽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와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고 악마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많은 문들을 악마를 향해 열어 놓은 이 남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탄 숭배를 거부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벌써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영들과 접촉했던 그가 나쁜 영들과 이별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합니다. 아직도 여러 영들이 그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모든 문을 닫기 위해선 그들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원치 않기에 그의 이름을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빌이라고 부릅니다. 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돌파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악으로부터 완전하게 갈라져 나온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한말이 거짓말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태껏 한 번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으로 속이고 괴롭히는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줄 귀한 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P국

평안을 주시는 ㅎㄴ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ㄱㄷ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 ㄱㄷ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일꾼 동역자님 ㄱㄷ를 더욱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건축의 일은 시작이 되었고 시작하신 이가 ㅎㄴ님이시기에 ㅎㄴ님 마치실 것을 알지만

이 일이 속히 마칠 때까지 끊임없는 동역자님 ㄱㄷ가 필요합니다. ㄱㄷ는 반드시 ㅎ늘 보좌에 올려질 것입니다. 아버님은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1차 파운데이션과 1층 블록을 쌓는 일과 기둥을 세우는 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입니다.파운데이션(기초)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블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 교실이 7개 샤워장이 2개 화장실이 2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2차 계획을 위해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2차 계획은 1층 슬라브와 2층 블록을 올리는 일 그리고 2층 기둥을 올리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약 20,00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ㅎㄴ님이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ㄱㄷ해야 할 것입니다.

ㅍㅋ스탄은 오늘부터 이드이기에 몇일 전부터 경찰과 레인저스들이 삼엄하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거리에는 양과 염소와 소들이 고르반이 되어 피가 진동을 합니다. 온 지역이 짐승의 피 냄새로 가득하여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명절은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꾼은 아버님께 ㄱㄷ합니다. 브살렐에게 부어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어 아버님 일꾼에게 지시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름 냉수 같은 ㅎㄴ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님의 지혜가 필요하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꾼을 위해서 간절한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들으시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ㄱㄷ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위한 ㄱㄷ제목

1. 1차 학교 건축 파운데이션, 1층 블록, 1층 기둥까지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2차는 1층 슬라브, 2층 블록, 2층 지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20,000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ㅎㄴ님 속히 일하시도록 ㄱㄷ를 부탁 드립니다

2. 염소는 이제 새끼를 세 마리가 배양해 23마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뭄이 있어서 먹지 못하여 새끼가 죽고 어미도 죽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마리를 보충하고자 하지만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께나안코트 자립프로젝트가 진행 될 수 있도록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1) 농업 프로젝트(15,000불 예상) 망고 프로젝트(10,000불 예상)

4. 언제나 치안이 불안한 곳이기에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담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교회와 학교만 담을 쳤습니다. 전체 담을 위해 약 6,000불이 필요합니다. ㄱㄷ해주세요

5. 어린이들은 학교 허가가 나올 때까지 가버먼트 스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공부, 숙제 첵업, 복습, 예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위한 ㄱㄷ제목

1. 일꾼을 부르신 ㅎㄴ님이 브살렐에게 부으셨던 ㅎㄴ님의 신을 부으사 ㅎㄴ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으로 충만하여 ㅎㄴ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며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2. 아내가 수술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져 심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ㅎㄴ님의 돌보심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3. 아들 전도사님이 이제 금년 사우스웨스턴 MDiv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ㅁㅅ 안수 문제로 인해 침례ㄱ회를 가야하는데 ㅎㄴ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ㄱㄷ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ㅅㄱ지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역지가 나타나기를 ㄱㄷ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의 땅 P국에서

바나바 김 올림

아프리카 영혼 위해 매년 선교 참여…

뉴욕 퀸즈장로교회 사역 열매 맺기를

[편집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단기선교팀의 아프리카 케냐 사역에 대해 강인중 선교사가 국민일보에 보낸 선교편지를 발췌 게재한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선교팀이 나록 오시노니교회와 올로로필교회에서 마사이 부족 사역을 위한 단기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오시노니교회는 마사이 부족의 행정 중심 도시인 나록에 위치한 교회로 저희가 개척해 성장하며 자립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 선교팀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올로로필교회는 해발 3000m의 고산지대 교회로 화전민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동 중 차량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식량과 식수 공급마저 어려워 선교팀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팀원들의 노력과 기도로 모든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성경학교와 특별활동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해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의 도를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희망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경우 일부다처제가 성행하고 산아제한이 없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아이들의 15%만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10년, 20년 후 케냐와 아프리카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는 1986년 9월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아 올해로 30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교회당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케냐의 복음화율(가톨릭 포함)은 30%를 조금 넘습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지인에 의한 복음 전파도 활발하지만 교회는 수도 나이로비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의 초원지대나 내륙의 부족민 지역은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마사이족처럼 잘 알려지고 현대화된 부족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부족도 있습니다. 케냐에만 50개 부족이 있고 그 중 27개 부족에 교회가 없습니다. 상당수 부족은 이슬람화됐거나 정령을 숭배합니다.

저희는 요즘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파송 30년 만에 두 번째 안식년입니다. 하지만 1년을 내리 쉴 수가 없어서 사정상 2~3개월씩 쉬는 안식월로 대체하고 합니다. 아름다운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케냐 강인중 선교사

선교 편지

스와지랜드-우아프로젝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후 15:8).

도무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습하고 무더운 날씨도 좀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찾아들면서 좀 지낼만 해 졌습니다. 올해의 2/3가 지나고 이제 넉달이 남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의 진행과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란 어느 시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시며 기도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배전의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스와지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과대학 문제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스와지랜드 기독대학교 의회에서 내년 8월에 의과대학을 한다고 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교수요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지원 과제로서 "스와지랜드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를 충남대학교가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스와지랜드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만나서 실제적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에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파악한 바로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어떻게 재정요건을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스와지랜드 정부 쪽 입장도 자기들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가도 교수요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김선영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여서 이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전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바라는 바처럼 내년 8월에 의과대학을 시작하려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모으고 의논하면서 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정년하시거나 앞둔 교수님들이 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27일 가졌던 퇴임기념 모임이 지금까지 우아프로젝트를 후원하시고 기도해주신 분들과 충남의대 기독동문회인 익투스가 함께 모여, 앞으로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고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더욱 기도도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주께서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남상윤 교수님은 스와코메디칼센터에서 진료하시는 것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시골마을인 로밤바클리닉에서 진료를 지난주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병원에서 파견된 임하리 간호사는 스와지간호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워크 퍼밋도 나와서 스와코 일 외에, 고아들 식사공급사역과 남 교수님 로밤바클리닉 진료사역을 함께 하는 등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한기 국장님은 제반 행정 및 정부기관 그리고 병원들과 협력하는 일들, 그리고 진료팀을 맞는 일로 분주합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사역자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KCOC인큐베이팅 지역조사사업을 위해서 국제의료협력단의 박시원 간사님과 예수병원 소아과 박신애 과장님이 1주일 일정으로 오늘 스와지로 출발합니다. 현지에서의 조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도 본 사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전후 7일간의 일정으로 삼성병원 신우회를 중심으로 한 진료팀 30여명이 방문하여서 혈액투석을 위한 AV shunt수술팀과 이동진료팀으로 나누어 섬기게 됩니다. 스와지에서 처음 맞는 대규모 인원들이기에 준비하는 기간과 현지에서의 일정이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정이 되도록, 팀원들과 스와지에서 준비하는 사역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 마지막 주에는 대구가톨릭의대 김은영 교수님(소화기내과)께서 일주일 방문하셔서 파랄라재단에서 보낸 환자와 검진할 분들을 담당해 주시기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준비하고 꼭 필요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아프로젝트 참여나 궁금한 점은 김경진 과장(010 2743 8430)이나 김선영 교수(010 4408 7154; sykim@cnu.ac.kr),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평강으로 충만한 나날이 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아프로젝트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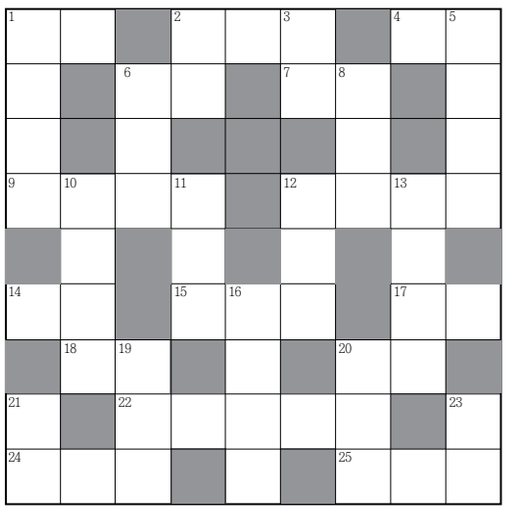
기도제목

1. 새로운 상주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2. 단기사역자(2-4주)들을 보내 주시기를
3.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4. 간호부분, 의료기사부분, 행정부분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sykim@cnu.ac.kr

십자말 • Cross Word (14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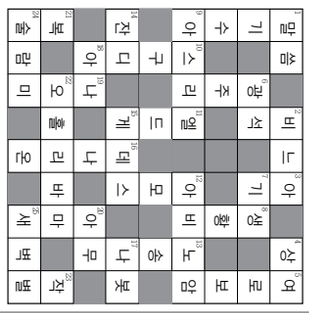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성경을 말함(요1:1).
2. 모사의 아들이며 요나단의 후손이다(대상8:37).
4. 시체를 나르는 제구(삼하3:31).
6. 광산에서 채국 되는 유용한 광물(욥28:3).
7. 술자리에서 흥을 돕는 직업여성(레19:29).
9. 므낫세 지파의 한 종족이다(대상5:24).
12. 사사 바락의 부친이다(삿4:6).
14. 미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매주 이것을 깎느라 고생이지요(막6:39).
15.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수20:7).
17. 이스라엘 부근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왕상21:1).
18. 알고 있지만……의 준 말(창42:8).
20. 꼭 이름을 지정하지 아니할 때 쓰는 대명사(신4:17).
22. 가나안 히위족속 시브온의 자손으로, 에서의 아내(창36:2).
24. 수넴의 주민을 가리킨다(아6:13).
25. 새벽하늘에 있는 별(욥3:9).

<세로 푸는 열쇠>

1. 길보아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한 아들(삼상14:49).
2. 빗돌(삼상18:18).
3. 어린 아이(룻4:16).
5.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요 예후왕조의 제4대 왕(왕하14:23).
6. 버들가지나 갈대로 엮은 바구니(막8:20).
8.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눅21:4).
10. 야만인에 대한 상징으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골3:11).
11. 단 지파의 성읍인데 후에 레위인에게 양여하였다(수19:44).
12. 드고아의 목자로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를 받았다. 12소선지의 한 사람(암1:1).
13. 측백나무과의 상록교목. 재목으로 용도가 다양(나2:3).
16. 신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은화(마20:2).
19. 룻의 시어머니(룻1:2).
20. 레위자손 일가나의 아들(대상6:25).
21. 점을 치는 술법(레19:26).
23. 서로 이별함(미1:14).

십자말 정답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 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주일학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2. 사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

1) 자녀들을 무시하는 일

많은 경우 사모는 교회 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 교회의 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 중 선택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사모가 아니고도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모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모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과 남편이 교회의 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책임을 주셨다. 부모가 교회의 일이 바쁘다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도 장차 교회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

기를 해주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주간에 학생들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은 손에 삼지창을 들고 머리에 뿔이 나고 꼬리가 달린 무서운 마귀 모습의 그림을 그렸다. 그 학생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선생님은 그 그림을 없애 버렸다. 왜냐하면 가정주간에 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녀들이 그린 그림을 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자녀를 정상적이고 활발한 아이로 키우려는 소원과 교인들 앞에서 목사의 자녀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입히기 쉽다.

3. 목사의 자녀들 곤경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소

1) 목회자에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교회의 일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매일 새벽기도회 인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설교, 심방, 상담 등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생각되면 사모는 눈치 볼 것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먼저 돌보는 목회자의 아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며 결국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부모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믿는다.

4. 목회자 자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

1) 자녀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프린스턴 대학의 조직신학교수인 하지 박사는 자신의 시간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토요일에 한 시간과 주일에 두 시간을 합쳐서 일주일에 세 시간을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표에 넣었다고 한다.

사모단상

밖에서는 '큰 존재', 가족에게는 '실종된 존재'

"어쩌면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빈자리'였습니다.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존재감을 느껴 본적이 없으니 부재를 부재로 느껴 본적도 없죠. 제가 아버지가 된 뒤로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 뿐이고 아버지는 속으로만 미안해했을 뿐이고…"

고(故) 옥한흠 사랑의교회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거인이었다. 2만여 목사, 선교사 제자와 수만 명의 신도들에게 그는 영적이 아버지와 같았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맏아들 옥성호씨는 "나에게 아버지는 영원히 실종된 존재"라고 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끈 그 거인은 집에선 '없는 존재'와 다름없었다. 언제나 일이고 세상에 시달리던 우리 아버지들처럼…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남 옥성호씨가 책을 썼다. 제목은 '아버지, 옥한흠'(도서출판 국제제자 훈련원). 밖에선 '큰 존재', 가족에겐 '없는 존재', 밖에서는 수만 신도를 이끌었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무심했던, 평생 사랑을 설교했지만 자식에겐 사랑을 표현 할 줄 몰랐던 "평생 사랑을 말했지만 자식에겐 사랑을 감췄던 그 사람, 아버지."

hslee39@sbcglobal.net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1)

이희숙 사모

2) 목사의 자녀를 미리 정해진 모델에 끼워 맞추는 일

아버지 목사의 지위, 체면, 위신문제 때문에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는다.

(1) 정서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

'혹시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의 목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가 꺾이고 위축감 때문에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다.

(2) 반항감을 갖게 된다.

특히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교인들 앞에서 호통을 치거나 면박을 주어서 무안하게 하지 마라. 반항감을 갖도록 하지 말고 조용히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야단을 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3) 가정의 분위기

많은 경우에 교회의 어려운 일이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회자 부부가 침울하고 답답해 할 때 자연적으로 목사가정의 분위기도 어두워진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곤하게 만들과 시무룩하게 만들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쉽다.

> 사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사모가 아니고도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모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전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아버지로서의 따듯한 손길마저도 줄 수 없을 때가 많다.

2) 사모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다.

사모는 자신의 정신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남편의 가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사모는 너무 일에 시달리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로 바쁘거나 피곤해서 자녀들과 의미 있는 대화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글래디스 푸르운 박사는 모든 목사와 그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제발 당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직업에 대한 위신 때문이나 모범적인 목사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변화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랑을 갈망하는 불안하고 환멸을 느끼는 나쁜 아이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비록 교회 성도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모단상

마귀의 모습으로 그려진 아버지 목사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댈러스에서 목회하는 어느 교회의 목사 아들에 관한 이야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외식의 어두움(마23:15-22)찬387장

왜 외식자는 어두움 속에 거합니까? 첫째, 헛된 열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15). 온 땅을 다니며 얻은 영혼을 자기외식의 제물로 삼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을 가집니다. 둘째, 탐욕을 중심했기 때문입니다(16-17). 사도들이 한결같이 싸운 육, 육신, 옛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거룩을 이용하는 사탄의 궤계에 편승한 것이니 사탄의 어두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사도의 지적(골3:5)은 이 실체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맹세훈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18-22). 그 당시 잘 사용하던 맹세가 그들의 외식을 세우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움보다 자기 의를 세움으로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앙생활은 외식과 싸우는 것입니다.

화 외식의 무지(마23:23)찬221장

겉날림으로 사는 외식자는 외형에 치중하므로 더 중요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무지했습니까? 첫째, 진정한 의를 몰랐습니다. 의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데, 율법의 배경과 기초가 그 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의 규범을 철저히 이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따른 것이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인을 몰랐습니다. 역시 의와 깊이 연합된 사랑과 긍휼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대치해 자기욕심을 이용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합니다. 셋째, 신실함을 몰랐습니다. 의와 신의 기초가 되는 신실함 곧, 진실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오직 진리인 그리스도와 성경과 연합된 자만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 외식의 탐욕(마23:24-29)찬405장

외식은 어떤 더러운 요소를 가집니까? 첫째, 방탕이 들어있습니다(25).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과 달리 외식은 그것을 자기탐욕 채우는 일에 급급하기 때문에 방탕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신은 자기 배가 돼버립니다(빌3:19). 그는 실천적 우상숭배자로 떨어집니다. 둘째, 거짓과 불법을 따라 삽니다(28).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곧,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대적해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버립니다(유1:6). 그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셋째, 그에게 살인 독이 뿜어 나옵니다(29-32). 욕구불만으로 가득 찬 그는 이웃관계에도 무서운 살인독을 뿜어 죽입니다. 심지어 사랑과 구제란 미명하에 선지자들마저 잡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고단수의 살인마가 돼버립니다. 이 외식을 경계합시다.

목 외식자에 대한 심판(마23:33-36)찬214장

외식자는 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주님은 외식자의 판결의 내용과 죄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33). 사탄과 마귀가 거처하는 지옥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마저 존재하지 않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경계하시는 주님의 경고는 더욱 그 비참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차라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곳을 피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둘째, 그들이 의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35-36). 외식자가 그곳에 가는 것은 아쉬운 판결이 아니고 의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대적하는 일이기에 절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사는 넘나드는 영적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속에 똬리 틀고 있는 외식과 싸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금 탄식하시는 주님(마23:37-39)찬543장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까? 첫째, 그것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지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일 뿐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살해의 장소가 됐기 때문입니다(37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마운 종들을 죽이는 것은 영안이 아담처럼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와 참 지식을 모르는 어두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최대한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살해 행위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거절에서 나온 것입니다(37하). 구조상, 기능상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를 내 하나님을 반역했기에 그 심판은 아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향한 주님의 탄식소리를 듣는 지혜자가 됩시다.

토 말세의 징조(마24:1-14)찬544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인 본문은 어떤 징조를 말합니까? 첫째,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왕성합니다(1-5). 진리를 가장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게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싸움이 많아집니다(6).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진리에 관한 혼란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상과 이념을 인간주의에 둘 때는 언제나 싸움이 생깁니다. 사탄의 목표는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난이 많아집니다(6-14). 기근과 지진으로 흑암과 혼돈에 떨어질 때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나 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자기를 살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믿음을 지킵니다. 오직 택한 자만이 이때를 견디며 이깁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2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샬롬의 교육학(6)

Shalom

이 희 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육의 목적은 샬롬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샬롬의 교육학 서론을 기술하였다. 서론에서는 교회 교육의 현상을 분석하고 교회 교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번 호부터는 샬롬 교육학 본론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오늘의 공교육은 평안하신가요?

사회가 더욱 미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청교도들에 의하여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하여 설립하였던 이 나라가 1960년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시간, 성경공부 시간, 예배시간을 없앤 이후 미국의 영적, 도덕적 가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손을 얹고 의원들이 취임선서를 하는 모습에서 바가바드기타(힌두교경전), 코란(이슬람경전), 수트라(불교경전)에 손을 얹고 미국 연방의회 의원 취임 선서하는 모습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닌 게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 약 5000만 명을 낙태시키고, 미국 장로교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할 수 있다고 결의하지 않았던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Inland Regional Center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테러사건이었는데, 필자가 이 사건을 두고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학교교육의 한계라는 문제였다. 범인 중 2명중 하나인 타시판 말렉은 파키스탄에서 들어온 이민자였지만, 사이드 파룩은 미국에서 태어난 토박이로서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다.

이뿐만 아니다.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침) 역시 당시 그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대학교육까지 정규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어떻게 동료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게 되었는가? 결국 이것은 학교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학교는 원래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개발해줌으로 사회공동체의 선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다. 과연 그런가? 필자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 그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도소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비행기를 타기 전 안전검사대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각 개인들도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항공보안대(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검색을 받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학교 교실에 입실하였던 것이다. 밖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경찰차와 총을 찬 채로 필자를 응시하였던 경찰관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물론 이것이 비단 학교만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000번 이상의 살인을, 100,000번 이상의 잔혹행위를 TV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 2011년 자료는 미국 학교에서 29,900개의 갱 조직에 782,500명의 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학자인 Garbarino는 학교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독성(toxic society)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라는 관료적, 독선적 조직행태 속에서 사회적 독성이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보았다.

하기는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80%는 학교 이외에서 배운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고, 일찍이 Bowles와 Gintis는 자본주의 하에서 학교는 지배계급의 가치와 의식을 주입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1971년에 Everett Reimer는 '학교는 죽었다'(School is dead)라는 책을 발간했고, 같은 해 카톨릭 신부인 Ivan Illich은 '탈학교의 사회'(Deschooling society)라는 책을 출간하여 학교를 대체할 4가지 새로운 기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학교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예전에 얘기한 대로 학교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귀중한 기관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그 방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샬롬: 교육의 목적

바로 여기서 필자가 계속 강조한 샬롬의 교육학의 기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왜 교육의 목적이 샬롬(shalom)이어야 하는가? 샬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즉 횡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 종적으로는 사람간, 사람과 자연 간의 섬김과 협동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죄가 이 땅으로 들어온 이래 완전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금이 갔고 죄의 여파는 모든 종적, 횡적 관계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교육이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이는 주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회복과 치유의 사역인 교육의 목적은 샬롬

"샬롬의 가치와 비전으로 영적 아이덴티티 갖고 서로 신뢰 존중하며 정의 실현하는 공동체 창출"

다시 말하면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회복의 사역(reconciliatory ministry)이고 치유의 사역(therapeutic ministry) 인 것이다. 그러면 샬롬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켰는가를 추적하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죄는 인간의 자아정체성을 파괴시켰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으로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영광이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이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인데, 죄가 들어온 이래 이러한 자기 존엄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자기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니 사람이 동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그래서 조상을 경험해야 한다고 동물원에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는 파렴치한 경우도 생겼고(human trafficking이라고 들어 보았는가?), 온갖 정신적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생령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불신자들은 지옥의 운명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그뿐인가?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유린하였다. 죄가 들어온 이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다. 서로 존중받는 사람들 관계가 서로를 수단시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2013년 한국 흥사단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 10명중 4명이 만약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내 친구를 짓밟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바로 이러한 죄성이 가득한 사회분위기에서 나온다. 결국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샬롬의 개념을 파괴시켰으며 따라서 교육이 회복의 사역이고 치유의 사역이라면 곧 교육의 목적은 샬롬이 되는 것이다.

샬롬의 교육학이 지향하는 방향

그러면 샬롬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구체적 방안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호에서는 두 가지 방향(개인적 수준과 공동체 수준에서)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개인적 수준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은 고유의 존엄성을 가지며 이는 어떤 경우/조건에서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숭고한 가치임을 교육시켜야 한다. 지체부자유 소녀이든, 흙수저로 태어난 어린이든, 영어를 잘못하는 할머니든, 심장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학생이든 모두가 그러하다.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 역시 똑같이 소중하게 대우받아야만 한다. 그러기에 왕따(bullying)는 범죄행위이며, 남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 영적 가치(예를 들면 자기훈련과 통제, 용기, 인내, 친절, 협동, 진실 등)와 태도를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최근 지능의 개념이 확장되어 Zohar와 Marshall은 영적 지능을 교육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함, 비전과 가치를 통한 삶을 통찰하게 함, 때로는 고통의 경험과 이를 극복함으로 자신을 성장시킴, 통전적인 세계관을 확보할 것, 다양성을 감사하게 할 것, '왜'라고 질문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답하도록 훈련할 것, 남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경험을 쌓을 것.

둘째, 공동체적 수준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서로 친절하고, 서로 섬기며 정의감 있는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된다. 학교 혹은 교회 어디든지 가르치는 장소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샬롬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지배하는 장소여야 하며, 아이들이 곧 신체적 조건, 언어와 피부색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곳이어야 한다.

필자가 예전에 켄터키 어느 학교에서 가르칠 때였다. 필자가 잘 아는 미국인 교수 한명이 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인디아에 사는 어떤 흑인 여자아이를 입양하였다. 그러나 백인이 다수인 켄터키 사람들은 흑인 아이를 사랑으로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그 이유를 묻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너와 같이 흑인이 아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샬롬의 교육은 인간성을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러기에 샬롬의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교육, 말과 언행이 합일하는 교육, 그래서 형제애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육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눈으로 보여야 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실천되어야 한다.

샬롬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교육

이러한 개인 및 공동체 수준의 접근을 통하여 샬롬 교육학의 최종 단계는 바로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불의를 미워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르치는 교육,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교육이 바로 샬롬의 교육이다. 따라서 샬롬은 정의(justice)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구김 없이 펼쳐지는 선의 공동체를 추구한다.

필자는 이제 샬롬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를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현장에서라도 샬롬의 가치와 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아이들 각자가 영적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hlee0414@gmail.com

〈계속〉